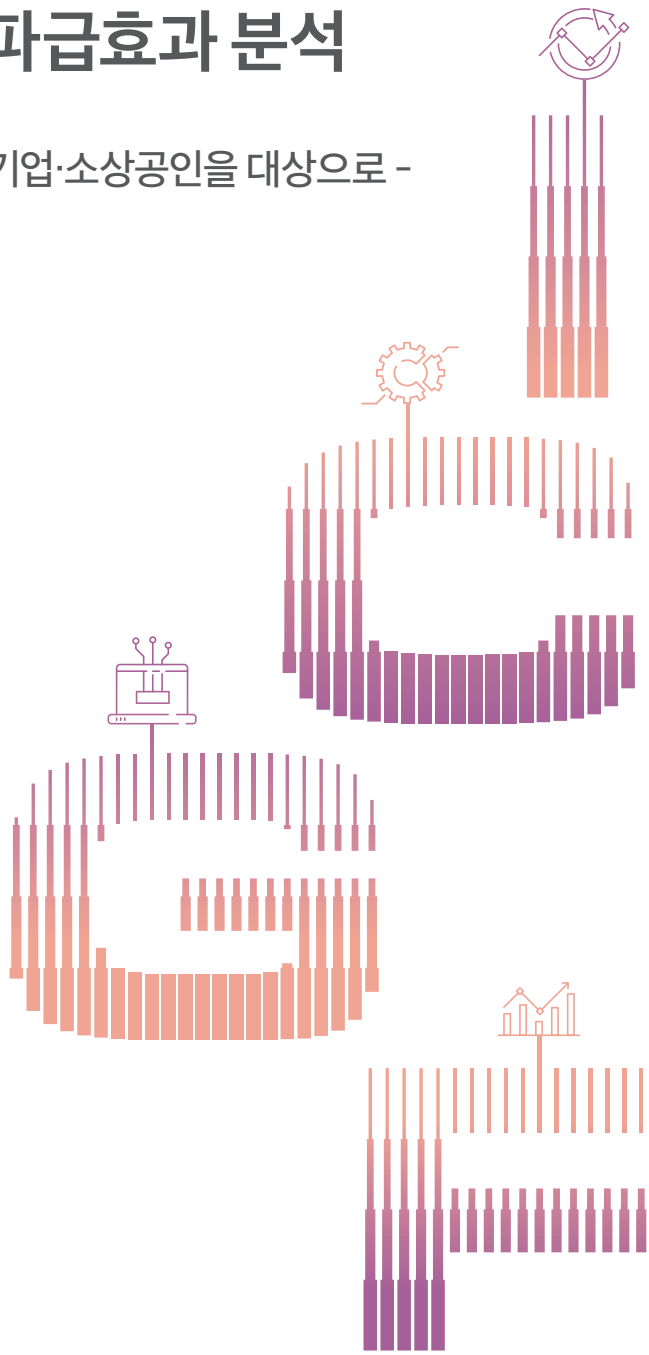
기본연구 2026-RR-005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사연구실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연구 책임

유길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영안정의 기반을 넘어,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끌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보증공급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증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은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전체 신규보증 공급실적을 대상으로 지역·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보증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와 업종별 특성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향후 맞춤형 보증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진단과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연구가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 부 현**

1.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일자리 제공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화 등의 우려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자, 소상공인들은 유동성부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적극적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대규모 긴급 보증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자금경색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체 생존과 지역경제 충격을 완충하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왔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25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시에서 최근 3년간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의 경제유발효과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산업부문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 즉 후방 연쇄효과를 의미하는 영향력계수는 1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유발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2025년 인천의 유발계수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는 지역내에서는 1.2이고 지역외에서는 0.7 전국은 총 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역내에서 0.5이고 지역외에서는 0.3 전국은 총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는 인천시 내부의 유발효과이고 지역외는 인천시 수요로 인천 외의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와 고용유발계수(명/10억 원)는 각각 13.9명과 7.4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23년도 약 2,317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4,4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는데 보증 금액 투입 금액이 많은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918억 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였다.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3,286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73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두 효과 모두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43.6%와 41.0%가 발생하여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서 4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현황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업종 편중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도 소상공인의 도매·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어 타업종 대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4년도 약 2,644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5,0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32.1%가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19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3,675명과 1,963명이 발생하였다. 고용유발효과 발생과 관련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4.9.13일자 "희망인천 특례보증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따르면 '24년도에 희망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 중에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1%였으며 응답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약 1,631명인 것으로 조사[1] 되었는데 이 수치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25년도는 약 2,888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5,49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했으며 '24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32.5%가 발생하였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386억 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3년과 '24년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증가하면서 취업·고용유발효과 인원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분석은 '25년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군구별로 총 6,957억 원의 신규보증액을 지원하였는데 서구에 1,469억 원을 공급하여 가장 많이 공급하였으며 남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공급하였다. 서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공급합계액이 전체 공급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가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의 50%[2]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 역시 타 군구에 비해 많은 점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를 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구가 2,786억 원, 남동구가 2,364억 원, 미추홀구가 1,752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

---

1) '24.8.13일부터 8.20일까지 카카오톡 설문조사로 실시 하였으며 '24년도 희망인천특례 보증을 이용한 고객인 5,702명에게 배포하여 약 22%인 1,238명이 응답하였음

2) 통계청의 「23년도 군구별 기업 규모별 사업체 현황」에 의하면 인천시 소상공인은 325,827개이며, 서구 66,006개, 남동구 57,738개, 미추홀구 41,752개임

였으며 3개구가 전체 생산유발 효과액 13,237억 원의 52.1%인 6,9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면 전체 5,759억 원의 효과가 발생했으며 서구가 1,215억 원, 남동구가 1,023억 원, 연수구가 776억 원으로 3개구 합계가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9,66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했는데 서구가 2,005명, 남동구가 1,706명, 연수구가 1,305명으로 3개구 합계가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5,17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했고 서구, 남동구, 연수구 등 3개구의 합계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을 많이 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가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군구에 따라서 업종별 경제유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강화군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3억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25명 발생했는데, 옹진군의 경우 같은 업종에 6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경우 19명의 취업유발효과만 발생하여 오히려 취업유발효과가 작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군구의 지역내와 지역외에서 경제유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이는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타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추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첫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증가율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3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도 각각 36%와 51%가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유발 효과가 21%가 증가하였다. 2022년 대비 2025년 보증공급량은 15%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20%, 15%씩 증가하였으나 취업유발 효과는 오히려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2년에 비슷한 36%의 보증 증가율을 보인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비교했을 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생산유발효과는 약간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는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 경제유발효과가 약간씩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2019년에 비해 2025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총보증공급은 72.3%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76.7%, 부가가치유발효과 88.1%, 취업유발효과는 25.7%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보증공급량을 달리하였을 때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비슷하게 증가하는데 취업유발효과는 그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증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경제유발효과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각각의 유발효과가 보증공급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보증공급량 자체보다는 지역산업구조와 업종에 따라서 보증투입량을 다르게 하면 각각의 경제적파급효과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세종시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여 2025년 7월 공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인천지역 최초로 경제적 현황을 고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증공급액의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추정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유발효과는 보증공급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 업종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향후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경제유발효과와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보증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규 보증공급액의 투입이 가장 많았던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운수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모두가 크게 추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효과가 거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등의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이유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고용흡수율이 높아 고용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소매업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및 다양한 유통 채널의 증가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음식 및 숙박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의 문턱이 낮고, 청년층이나 퇴직 및 실직 후 중장년층의 창업이 많아져 과다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폐업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금 지원 측면 이외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구별 경제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비교적 신용보증공급액이 많은 서구와 남동구 순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구에서는 타지역 대비 농림어업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 투입 대비 취업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중구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보증 정책 수립 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니즈를 충족 시킬수 있는 특례 보증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경제유발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은 지역에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안정된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경제유발효과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회사 출연요율 개선이다. 은행권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은 원래 0.04%였는데 2024년 제도 개편을 통해 기본요율을 0.05%로 높이고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한시 조치가 종료되어 기본 0.05%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회사 출연금의 분배 비율이 신보나 기술신보에 비해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 격차를 줄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을 0.07%로 상시화하거나 경기 위험 연동 추가 출연요율을 적용하여 기본요율 0.05% + 경기·위험 연동 추가 요율을 0~0.03%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지역신보 전체 대위변제율, 소상공인 연체율, 폐업률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시 0.01~0.03%의 추가 출연을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2026년 6월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서 현재 50%이상인 일반 재보증비율을 8월부터 30%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중저신용자들은 50~60%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해야 보증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보증비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은행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은 증가하고 재원 증가 폭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 있는바, 금융회사와 정부의 출연 확대를 통해서 지역 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도록 한 후에 재보증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증심사 방식의 변화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국세청 재무자료와 신용평점, 부채 등의 자료만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판단하기 보다는 카드 매출, 지역화폐 매출, 상권 유동 인구, 업종별 매출추세, 임대료, 공실률, 배달 매출, 지역 경기, 사업자의 생존기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실제 영업실적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증 심사 기법을 개발하여 고도화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2025년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2020년이후에도 지역의 산업 및 기술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보다 최근 연도의 지역산업연관표가 공표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소상공인의 매출실적과 같은 직접적 효과인 재무적성과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지원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성격과 지원제도는 다르겠지만 보증 잔액과 보증공급 규모가 비슷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이나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른 경제적파급효과를 추정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증만 이용한 기업과 보증과 비금융지원을 동시에 이용한 기업의 매출·고용·생존율을 비교하면 정책적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좋은 연구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2 소상공인의 정의 및 신용보증제도

제1절 소상공인의 정의 ····· 11
1.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 ····· 11
2. 소상공인의 현황 ····· 12
3. 인천광역시의 사업체 및 경제 현황 ····· 14

제2절 신용보증제도 ····· 19
1.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 19
2. 국내의 신용보증제도 ····· 21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용 현황 ····· 23
4.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 ····· 30

제3절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 36
1. 신용보증지원 효과성에 관한 연구 ····· 36
2.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 40

3 연구의 설계 및 조사방법

제1절 산업연관분석 ····· 43
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 43
2.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 44

제2절 지역산업연관의 분석 ····· 46
1. 지역산업연관표의 개념 ····· 46
2. 지역산업연관표의 유형 ····· 47
3. 지역산업연관표 분석 방법 ····· 49

제3절 지역산업연관 분석관련 유발계수 ····· 51
1. 투입계수 ····· 51
2. 생산유발계수 ····· 52
3. 부가가치유발계수 ····· 52
4. 취업유발계수 ····· 53
5. 고용유발계수 ····· 53

목 차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4 인천시 경영안정 자금의 지역경제유발 효과와 군구별 경제유발 효과

제1절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경제유발효과 분석 ····· 57
1. 인천 전지역의 업종별 경제유발계수 ····· 57
2. 인천 전지역의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59

제2절 인천시 2025년도 보증공급액의 군구별 경제유발효과 분석 ····· 67
1. 인천 강화군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67
2. 인천 옹진군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69
3. 인천 중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1
4. 인천 동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3
5. 인천 미추홀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5
6. 인천 연수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7
7. 인천 남동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9
8. 인천 부평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81
9. 인천 계양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83
10. 인천 서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85
11. 인천시 군구별 보증공급액의 경제유발효과 ····· 87

제3절 인천과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 88

5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95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98
1. 연구의 시사점 ····· 98
2. 연구의 한계점 ····· 100

참고 문헌 ····· 101

표 목 차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1 서론

2 소상공인의 정의 및 신용보증제도

〈표 2-1〉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법률상 분류 ····· 12
〈표 2-2〉 전국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 13
〈표 2-3〉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 13
〈표 2-4〉 업종별 소상공인 분포 ····· 14
〈표 2-5〉 전국과 인천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23년) ····· 14
〈표 2-6〉 인천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 15
〈표 2-7〉 인천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 15
〈표 2-8〉 인천의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 분포 ····· 15
〈표 2-9〉 연도별 전국 및 인천 지역내 총생산 규모 현황 ····· 16
〈표 2-10〉 연도별 인천 인구수 변화 ····· 16
〈표 2-11〉 연도별 전국 및 인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 17
〈표 2-12〉 2023년 인천 시군별 지역내총생산(명목, 당해연도 가격) 현황 ····· 17
〈표 2-13〉 2023년 인천 지역내총생산(명목, 당해연도가격)의 산업부문별 구성비 현황 ····· 18
〈표 2-14〉 신용보증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 ····· 22
〈표 2-15〉 연도별·기관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 23
〈표 2-1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2025년 말 현재) ····· 25
〈표 2-17〉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현황(2025년 말 현재) ····· 26
〈표 2-1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현황(2025년 말 현재) ····· 27
〈표 2-1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지역별 재보증 현황 ····· 29
〈표 2-20〉 전국신용보증재단 대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2026.7월말기준) ····· 30
〈표 2-21〉 인천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공급 및 잔액현황 ····· 30
〈표 2-22〉 군구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현황 ····· 31
〈표 2-23〉 군구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현황 ····· 32
〈표 2-24〉 인천의 업종별 사업체 및 보증 잔액 현황 ····· 33
〈표 2-25〉 인천의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2025년말 기준) ····· 33
〈표 2-26〉 인천의 금액별 보증공급 현황(2025년말 기준) ····· 34
〈표 2-27〉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종류 ····· 34
〈표 2-28〉 연도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 35

표 목 차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3 연구의 설계 및 조사방법

4 인천시 경영안정 자금의 지역경제유발 효과와 군구별 경제유발 효과

〈표 4-1〉 2025년 기준 인천의 업종별 단위 보증공급액당 경제유발계수 ····· 58
〈표 4-2〉 2023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60
〈표 4-3〉 2024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62
〈표 4-4〉 2025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65
〈표 4-5〉 2023년~2025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연도별 경제적파급효과 ····· 66
〈표 4-6〉 2023년~2025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단위보증공급액당 효과 ····· 66
〈표 4-7〉 인천시 강화군의 보증지원 현황 ····· 68
〈표 4-8〉 인천시 강화군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68
〈표 4-9〉 인천시 옹진군의 보증지원 현황 ····· 70
〈표 4-10〉 인천시 옹진군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0
〈표 4-11〉 인천시 중구의 보증지원 현황 ····· 71
〈표 4-12〉 인천시 중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2
〈표 4-13〉 인천시 동구의 보증지원 현황 ····· 73
〈표 4-14〉 인천시 동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4
〈표 4-15〉 인천시 미추홀구의 보증지원 현황 ····· 75
〈표 4-16〉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6
〈표 4-17〉 인천시 연수구의 보증지원 현황 ····· 77
〈표 4-18〉 인천시 연수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78
〈표 4-19〉 인천시 남동구의 보증지원 현황 ····· 79
〈표 4-20〉 인천시 남동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80
〈표 4-21〉 인천시 부평구의 보증지원 현황 ····· 81
〈표 4-22〉 인천시 부평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82
〈표 4-23〉 인천시 계양구의 보증지원 현황 ····· 83
〈표 4-24〉 인천시 계양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84
〈표 4-25〉 인천시 서구의 보증지원 현황 ····· 85
〈표 4-26〉 인천시 서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 86
〈표 4-27〉 '25년 인천시 군구별 보증공급액의 경제유발효과 ····· 87

4

인천시 경영안정 자금의 지역경제유발 효과와 군구별 경제유발 효과

〈표 4-2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 88
〈표 4-2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증감률 추이 비교 ····· 89
〈표 4-30〉 주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계수값 비교 ····· 90

5

결 론

그림목차

INCHEO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1
서론

2
소상공인의 정의 및 신용보증제도

[그림 2-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기본 구조 ····· 28

3
연구의 설계 및 조사방법

[그림 3-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 45
[그림 3-2]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47
[그림 3-3]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48
[그림 3-4]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49

4
인천시 경영안정 자금의 지역경제유발 효과와 군구별 경제유발 효과

5
결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중소기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023년 기준 약 791만개로 전체 사업체 수 약 831만개의 9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종사자수는 약 1,09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 약 2,377만 명의 45.9%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즉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 및 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업종으로 무분별한 진출에 따른 과다 경쟁의 발생과 코로나 19 팬데믹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25.4.29자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39.6%에 불과했다. 창업기업 10곳중 6곳(60.4%)가량이 폐업한 셈이다. 창업기업의 증가와는 달리 같은 기간 생존율은 매우 낮은 다산다사(多産多死)한 특징을 보였다.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53.8%였으며 가장 높은 3년 생존율[1]을 보인 업종은 미용실(73.4%), 펜션·게스트하우스(73.1%), 교습학원(70.1%)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패스트푸드점(46.8%)순으로 나타났다.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창업후 3년이 지나면 절반 가량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급변하고 있는 경제·사회환경 속에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즉시 체감하기에는 운영의 한계가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조사한 "2025년 소상공인 금융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기침체가 46.0%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금융비용(32.1%), 자금조달(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자금조달(39.7%)에서 어려움을

1) '23년기준 3년 생존율은 '20년에 창업한 사업자 중에서 '23년까지 계속 사업한 자의 비율임

겪는 비중이 높았으며, 음식·숙박업은 원부자재 가격(30.1%)으로 인한 어려움이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 대비 2025년 자금 사정이 악화하였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일(20.5%), 원활(7.1%)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2025년 자금사정 악화이유(7점 척도)로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가 5.91점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물가 상승(5.86점), 판매감소(5.58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을 이용한다는 비중이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1금융권(15.1%), 정부 정책자금(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을 추구하는 제도권의 금융회사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8년 설립되어 인천의 대표 공적 보증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한지 올해로 28년이 되었으며, 이제는 금융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초자치단체별·업종별 신용보증 지원의 효율적인 보증공급 방안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보증 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성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증 분석하는데 첫째, 인천시에서는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에 따른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이 생산·부가가치·취업·고용 유발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5년도에 신규 보증한 6,957억 원이 인천시 전체 및 10개 시군구 등 지역별·업종별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천지역에 맞는 보증정책 수립 및 신용보증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및 제도에 관한 실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수 있지만,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일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정책자금에 한정하여 한국은행이 공표한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활용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있었지만,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 신용보증지원이 시군별·업종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2025년 7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가 최초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하여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등을 분석·측정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과 시기, 자료를 제한하여 수집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업체는 인천 지역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 지역의 제한은 신용보증지원이 인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지역을 제한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업체의 분석자료는 2025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현황 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인천시가 '26.7.1자로 기존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나 본 조사는 개편되기 전의 2군 8구 체제(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에서 분석하였다.

넷째, 시기의 제한은 인천시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제일 많았던 최근 3년간의 보증공급자료로 제한하였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5년도 신규 보증 공급액 6,957억 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지원한 경영안정자금과 2025년에 신규 지원한 보증공급액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 해당 업종의 생산활동에 투입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잠재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인천시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제 현황을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현재 인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실적과 신용보증지원을 하였던 2025년도의 보증현황 자료중 2025년도 신규보증 총공급액[2]을 파악하고 이를 투입 변수로 한국은행이 2025년 7월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중 업종을 33개로 분류한 후 인천 지역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신용보증 총공급액은 기한연장 및 갱신보증을 제외한 당해 연도 신규 보증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전체 및 10개 군구 지역별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연구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상공인 개념과 현황,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인천 지역의 경제 현황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의 운용 현황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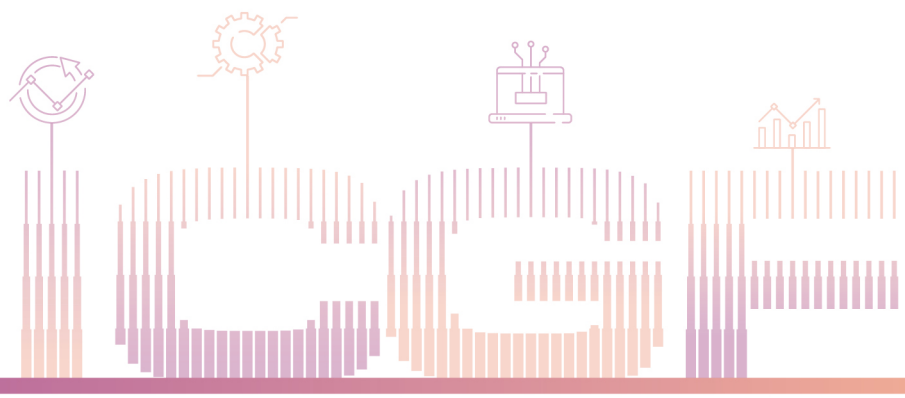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계 및 조사방법과 지역산업연관의 분석에 관한 개념과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절차를 통해 최근 3년간 지원한 경영안정자금과 25년도 신규 보증 취급 실적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생산·부가가치·취업·고용유발효과를 도출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경제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한계점, 그리고 본 논문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소상공인의 정의 및 신용보증제도



제1절

소상공인의 정의

1.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별도의 대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명칭 속에 개념화되지 못하였으며, 학계에서도 소상공인이란 표현은 하지 않고 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사업체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소상공인의 개념을 소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다.

양갑모(2015)에 의하면 국내에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1998년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미국의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도 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소상공인이라는 대상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칭 속에 포함되어 독자적인 정의와 범위를 가지지 못한 채로 대기업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모든 기업 혹은 사업체를 일컫는 포괄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법적 차원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란 법적인 지위가 부여된 것은 헌법 제123조 제3항과 제5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기초를 두고 1966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구별하여 규정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982년 이전까지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는 복합적인 명칭 아래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1995년 동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995.7.1)」 제2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구분하였는데 그 기준은 상시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 자산 총액을 중심으로 기준 마련,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질적 요건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현재는 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차원에서 소기업과 중소

기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1992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하게 되었다. 그 후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1997년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일반화되었으며, 법적인 정의는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되면서 유래되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도 함께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범위 설정 기준은 정책 대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내의 경우 법적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표 2-1〉과 같이 업종별 상시 종업원 수에 의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표 2-1〉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법률상 분류

구 분	업 종	상시근로자수	관계법령
중소기업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30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그밖의 업종	10인 미만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밖의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통계청의 종사자 지원에 따른 용어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사업자로 일반·간이·면세사업자를 통칭한다.

2. 소상공인의 현황

소상공인은 비록 그 규모가 작지만 사업체 및 종사자 수와 그 비중이 높고 사회적 안전망과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중산층 형성의 기반을 이룬다. 〈표 2-2〉에서 전국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청(2025년)의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소상공인은 791만 개로 전체 사업체 중 95.2%로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자본주의가 급속히 도입되면서 일부 산업에서 기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 즉 외식업이나 호텔업 등에 자영업자들이 진출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서 재취업이 잘 되는 나라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다. 다시 취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고 한번 그만두면 재취업이 잘 안되는 나라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도 후자에 가까운 구조다. 또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창업 정책을 장려하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표 2-2〉 전국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체수	전체	7,723,867	8,053,163	8,309,696
	소상공인 (비중)	7,335,397 (95.0%)	7,656,718 (95.1%)	7,906,861 (95.2%)
종사자수	전체	22,865,491	23,410,899	23,767,377
	소상공인 (비중)	10,461,890 (45.8%)	10,740,812 (45.9%)	10,899,947 (45.9%)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2025), 「2025년 중소기업현황」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의 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의 비중은 〈표 2-3〉과 같다. 인천의 경우 전체의 사업체수 중 95.5%가 소상공인으로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지역별 종사자 수 에서 소상공인의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강원이 64.1%로 가장 높고, 인천은 서울 30.5%보다 높은 52.3%로 중기업이나 대기업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개, 명, %)

지역분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소상공인	비중	전체	소상공인	비중
전국	**8,309,696**	**7,906,861**	**95.2**	**23,767,377**	**10,899,947**	**45.9**
서울	1,700,690	1,596,976	93.9	7,077,260	2,156,537	30.5
부산	499,906	475,858	95.2	1,261,299	670,219	53.1
대구	354,519	339,441	95.7	852,089	476,532	55.9
인천	**449,994**	**429,753**	**95.5**	**1,118,334**	**585,394**	**52.3**
광주	210,655	201,099	95.5	511,349	277,331	54.2
대전	211,259	201,480	95.4	541,057	278,459	51.5
울산	144,284	137,189	95.1	421,523	189,476	45.0
세종	47,649	45,655	95.8	106,008	60,591	57.2
경기	2,218,905	2,109,725	95.1	5,956,638	2,927,378	49.1
강원	250,925	241,938	96.4	522,926	335,122	64.1
충북	247,163	235,205	95.2	655,664	328,041	50.0
충남	342,387	327,037	95.5	900,082	449,401	49.9

지역분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소상공인	비중	전체	소상공인	비중
전북	295,146	284,627	96.4	609,794	383,238	62.8
전남	304,474	293,013	96.2	689,446	396,172	57.5
경북	407,080	390,550	95.9	997,258	547,125	54.9
경남	490,644	469,299	95.6	1,265,515	663,481	52.4
제주	134,012	128,016	95.5	281,205	175,450	62.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재편·가공

업종별 소상공인 분포는 〈표 2-4〉와 같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37.3%에 달해 업종 편중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크게 필요치 않고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과밀업종은 과다한 경쟁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취약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4〉 업종별 소상공인 분포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산업	**8,309,696**	**100**	**23,767,377**	**100**
도소매업	2,200,504	26.5	4,285,095	18.0
음식숙박업	894,060	10.8	2,023,882	8.5
제조업	616,664	7.4	5,030,155	21.2
기 타	4,598,468	55.3	12,428,245	52.3

출처 : 통계청,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3. 인천광역시의 사업체 및 경제 현황

2023년 기준 인천의 사업체는 약 44만 9천 개로 전국 사업체수 대비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약 111만 8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수 대비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전국과 인천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23년)

(단위 : 개, 명, %)

지역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국	8,309,696	100	23,767,377	100
인천	449,994	5.4	1,118,334	4.7

출처 : 통계청,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인천의 전체 사업체수에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429,753개로 95.5%, 소기업은 12,804개로 2.8%, 중기업은 7,082개로 1.6%, 대기업은 355개로 0.1%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6〉 인천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합계
2023년	429,753(95.5)	12,804(2.8)	7,082(1.6)	355(0.1)	449,994(100)

㈜ ( )안은 비중

출처 : 통계청의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2023년 기준 인천의 전체 종사자 수는 소상공인 규모 업체에 52.3%인 585,39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소기업 규모에는 17.4%인 194,050명, 중기업규모에는 18.7%인 209,638명, 대기업에는 11.6%인 129,252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7〉 인천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합계
2023년	585,394(52.3)	194,050(17.4)	209,638(18.7)	129,252(11.6)	1,118,334(100)

㈜ ( )은 비중

출처 : 통계청의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2023년 기준 인천의 전체 사업체 중 도·소매업체가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숙박업은 9.9%, 제조업은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수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18.8%인 209,955명, 음식·숙박업은 8.3%인 92,577명, 제조업은 25.9%인 289,781명 비중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종사자 중 제조업(25.9%) 도매 및 소매업(18.8%), 음식 및 숙박업(8.3%) 순으로 3개 업종의 종사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인천의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 분포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		종사자수	
	전체	소상공인	전체	소상공인
전산업	449,994 (100)	429,753 (100)	1,118,334 (100)	585,394 (100)
도·소매업	127,378 (28.3)	122,879 (28.6)	209,955 (18.8)	155,781 (26.6)
음식·숙박업	44,663 (9.9)	42,370 (9.9)	92,577 (8.3)	66,618 (11.4)
제조업	35,651 (7.9)	31,002 (7.2)	289,781 (25.9)	76,150 (13.0)
기 타	242,302 (53.8)	233,502 (54.3)	526,021 (47.0)	286,845 (49.0)

출처 : 통계청의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인천의 2024년 지역내총생산[1]은 약 126조원 규모로 전국 기준 4.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경기(3.6%), 울산(3.4%), 전남(3.4%), 경남(3.2%)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공항·항만을 기반으로 한 운수·물류산업과 송도 바이오 의약품 산업, 반도체 후공정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동·부평·주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등 전통적 제조업 기반도 함께 갖춘 복합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다.

〈표 2-9〉 연도별 전국 및 인천 지역내 총생산 규모 현황

(단위 : 십억 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성장율
전국	2,327,596	100	2,411,864	100	2,560,811	100	2.0
인천	113,253	4.9	117,658	4.9	125,592	4.9	3.1

(주)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
출처 : 통계청, 연도별「지역소득」

인천의 행정구역은 8개구(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동구, 중구, 서구) 2개군(강화군, 옹진군)으로 인구는 2024년 305만 8천명으로 2020년대비 11만명이 증가한 이유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주된 요인이며, 인천공항·인천항을 기반으로 운수·창고업과 송도 바이오·첨단 제조업의 성장이 지역의 고용 및 소득 기반을 강화하면서 인구 유입이 뒷받침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연도별 인천 인구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천	2,945,454	2,957,044	2,989,125	3,025,950	3,058,033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지역소득」, 행정구역별 인구총조사

2024년 인천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1인당 지역내 총생산(50.2백만 원) 보다 낮은 43.4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86.5%로 17개 광역단체중 중간 수준(10위)의 지역내 총생산(GRDP)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2023년 인천공항·인천항 중심의 운수·물류업 회복과 2024년 의약품·바이오 및 석유·화학 중심 제조업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지역내 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를 말한다. 지역 내 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 내 총생산이 낮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표 2-11〉 연도별 전국 및 인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45,588	100	47,310	100	50,196	100
인천	39,748	87.2	41,340	87.4	43,415	86.5

출처 : 통계청, 연도별 1인당 GRDP(시도)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의 군구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8개 구지역의 경제적 비중은 97.7%, 2개 군지역의 경제적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서구가 인천 지역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구 17.7%, 남동구 16.8%, 연수구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구가 가장 높은 이유는 산업단지와 제조업체의 집적에 따른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내 총생산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낮은 이유는 소규모 지역 중심의 생활·관광·농수산 경제라는 산업구조의 차이 때문으로 사료 된다.

〈표 2-12〉 2023년 인천 시군별 지역내총생산(명목, 당해연도 가격)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구성비
			증감	증감율	
강화군	1,795,065	1,819,680	24,615	1.4	1.5
옹진군	894,309	922,891	28,582	3.2	0.8
중 구	20,678,156	20,800,696	122,540	0.6	17.7
동 구	4,524,659	4,619,500	94,841	2.1	3.9
미추홀구	8,602,159	8,825,473	223,314	2.6	7.5
연수구	16,739,521	17,007,264	267,743	1.6	14.5
남동구	18,990,355	19,790,222	799,867	4.2	16.8
부평구	12,344,696	13,010,283	665,587	5.4	11.1
계양구	5,658,092	5,891,252	233,160	4.1	5.0
서구	23,026,059	24,971,135	1,945,076	8.4	21.2
인천광역시	**113,253,071**	**117,658,396**	**4,405,325**	**3.9**	**100**

출처 : 인천광역시, 연도별「인천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인천의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의 업종별 구성비는 제조업이 인천 전체 지역내 총생산의 2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 및 창고업이 12.2%이고 도·소매업 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은 10.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3〉 2023년 인천 지역내총생산(명목, 당해연도가격)의 산업부문별 구성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3년	비중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17,658,396	100
순생산물세	9,107,203	7.7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8,551,193	92.3
농림어업	263,315	0.2
광업	61,410	0.1
제조업	**28,878,050**	**26.6[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69,840	2.1
건설업	8,151,210	7.5
도매 및 소매업	9,019,416	8.3
운수 및 창고업	**13,216,333**	**12.2**
숙박 및 음식점업	2,843,295	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73,113	1.6
금융 및 보험업	4,548,179	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644,504	8.0
사업서비스업	6,293,644	5.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996,698	6.4
교육서비스업	5,256,631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577,660	6.1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757,895	3.5

출처 : 통계청, 「지역소득」

2) 제조업의 비중 26.6%는 23년도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을 총부가가치(기초 가격)로 나눈 비율

제2절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경영 능력 및 사업성, 수익성, 미래 지향성 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무형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출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외형 신용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잠재적 신용 능력을 바탕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제 3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시켜 주는 금융제도이다.

특히 기술력이나 특허 등 무형적 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정의나 이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다양한 정의 속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보증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기관 보증, 국제간 이루어지는 정부보증 등은 여기에서 분류하는 신용보증제도로 보기가 어렵다.

둘째,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의 출연 등 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재보증의 형태로 정부의 간접적 재원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 금융회사들의 단체인 공제조합 등이 취급하는 보증 및 보험제도는 신용보증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신용보증제도는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해결해 주는 독자적인 금융시스템이며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 중개시스템이다. 이러한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의 실패로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매개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신용보증제도를 파악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제도의 공통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신용보증제도란 외형 신용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들에게 내재된 잠재적 성장 가능성 및 신용 능력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 시켜주는 독자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는 1961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961년 3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중소기업의 신용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1년 7월에 「중소기업은행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면서 같은 「중소기업은행 시행령」에 신용보증 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도화한 것이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최초 시작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이자 외에 일정율의 신용보증 준비금을 수납하고 이를 별도 적립하여 대출금중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담보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64년 9월부터 준비금의 운용을 보전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이 준비금의 운영 배수를 10배 범위 내에서 보증부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신용보증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 1967년 3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기존의 신용보증준비금을 승계하고, 정부가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기금의 10배 범위에서 채무보증을 하도록 하면서 보증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2년 8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용보증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은 농·수협과 한국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가 신용보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기업이 보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이 설치된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이 확충되자 각 금융회사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신용보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통합하여 이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2월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되고 1976년 6월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신용보증 업무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벤처 붐이 급속이 일어났고, 이러한 붐은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9년 4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 및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이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단일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두 개의 복수 지원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던 소상공인이 대폭 확산 됨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96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조합의 형태인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어 2000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모두 설립되어 삼원화된 신용보증지원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신용보증제도의 지원구조를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성과 경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부 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조사 및 심사를 통한 보증지원의 대상에 대한 적격 여부, 보증 한도 및 보증료율을 산출한다. 정교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보증심사를 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3]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재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운영할 수 있다. 초창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역재단 특성에 맞추어 각각 재보증을 하였으나, 2004년 1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재보증이 일원화됨에 따라 현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하고 있다.

2. 국내의 신용보증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보증기관은 〈표 2-14〉신용보증기관의 주요 업무 및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률을 통해 각 기관의 설립과 기본재산의 출연방법, 운용 배수 등을 규정하여 신용보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출연하고, 금융위원회가 업무감독을 받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해당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여 소상공인 보증과 저신용·저소득자 보증을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경색 및 수출입의 부진, 실업률의 급증과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과 메르스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었을 경우, 그리고 재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의 기금 한도 내에서 특별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3) 재보증이란 원보증기관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험을 하고, 사업체의 사고로 원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위변제를 한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재보증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청구하여 기본재산의 손실을 막는 기능이다.

〈표 2-14〉 신용보증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법	신용보증기금법 (1974.12.21.)	신기술사업지원금융에관한법률 (1986.12.2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0.3.1.)
설립일자	1976.6.1	1989.4.1	1996.3.19
설립목적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운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조성	정부·금융회사·기업출연금	정부·금융회사·신기술사업출연금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기업 출연금
주요업무	신용보증,신용조사,경영지도,신용정보관리,대위변제와구상권,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신용조사,경영지도,신용정보관리,대위변제와구상권,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신용조사,경영지도,신용정보관리,대위변제와구상권
차별화업무	SCO신용보증, 신용위험	기술평가·인증,벤처·이노비즈기업 발굴	소상공인보증 저신용·저소득자보증
영업범위	전국	전국	해당광역자치단체
업무감독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보증한도	운영자금 30억 원	운영자금 30억 원	운영자금 8억 원
보증료율	0.5%~3%	0.5%~3%	0.5%~2%

출처 : 신용보증기금(2016) 신용보증기금 40년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위험률이 높지만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무등록·무점포의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생계형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이나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으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간, 산업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표 2-15〉는 연도별·기관별 보증지원 현황이다. 2024년 보증 잔액을 살펴보면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뚜렷이 부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연도별·기관별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 억 원, 조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책자금 지원현황	정책자금지원금액(억 원)	43,580	62,900	60,100	54,400	54,699	52,080
	정책자금지원업체수(개)	15,865	24,407	22,592	19,778	20,122	17,714
보증지원 현황	신용보증기금	47.2	55	59.1	61.4	61.8	62.5
	기술보증기금	21.8	25.4	26.3	26.5	27.9	28.5
	지역신용보증재단	23.0	39.4	43.1	46.6	44.6	42.7
	계	92.0	119.8	128.5	134.5	134.3	133.7

출처 : 정책자금공급(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잔액(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용 현황

가. 지역경제의 특성

지역경제는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국민복지와 균형성장을 이루는 것이 주 역할이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구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축을 이룬다. 특히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축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부터이며 초기에는 건설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방 소외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박양호(2002)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권력과 중추관리 기능이 집중된 서울(수도) 지향의식이 상존하고 있으며, 자기 성취 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심, 지방-주변이라는 전반적인 종속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모든 중요한 것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 교류 기회는 상실되고, 지역 간 교류는 수도 서울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교류 행위로 대체되어 버리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국토 불균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산업의 지식화, 정보 첨단산업의 발달, 국제화 추세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특성 및 입지 요인을 잘 파악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권성환(2002)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당해 지역의 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제공된다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간 격차의 발생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적 책임이 더 크며, 기초자치단체는 경제적 분권화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인구, 경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역 고유의 지리, 경제, 사회,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특성과 생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산업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1995년 신경제 정책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제32조에 의거 1996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신용보증재단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9년 9월 특별법으로 제정되면서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시행으로 조합에서 재단으로 전환되었다(우소동, 20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설립 근거 및 목적, 보증 재원의 조성 등이 명확해졌으며,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조원희, 2007).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정책금융의 수단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운영 규모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요 업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기본 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이 있다.

〈표 2-1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2025년 말 현재)

구분	설립등기일	임직원수	영업점수
강원	1999.4.10	76	본점(1),지점(7)
경기	1996.3.6	394	본점(1),지점(37)
경남	1996.5.17	116	본점(1),지점(14)
경북	2000.3.22	98	본점(1),지점(15)
광주	1996.6.24	65	본점(1),지점(7)
대구	1996.11.7	109	본점(1),지점(11)
대전	1997.4.1	69	본점(1),지점(5)
부산	1997.6.16	116	본점(1),지점(12)
서울	1999.6.16	499	본점(1),지점(31)
세종	2021.11.22	21	본점(1)
울산	2000.4.3	39	본점(1),지점(5)
인천	**1998.2.3**	**113**	**본점(1),지점(10)**
전남	2001.6.14	71	본점(1),지점(6)
전북	2002.12.6	99	본점(1),지점(18)
제주	2003.8.2	43	본점(1),지점(2)
충남	1998.9.17	125	본점(1),지점(15)
충북	1999.4.15	70	본점(1),지점(6)
계		2,123	본점(17),지점(201)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5연차보고서

〈표 2-16〉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말 직원 수는 총 2,123명이며 본점은 17개이고 보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점은 201개가 있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현황

보증기관의 출연금은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4]으로 신용보증 공급[5]과 대위변제 등에 사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감독기관인 정부와 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융회사에서 법정 출연요율에 따라 출연을 받는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정부의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금과 임의 출연금, 기업의 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당시 금융회사의 출연을 의무화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설립 당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규정이 없으며, 2006년 10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금이 신설되었다.

4)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기본재산 조성)에 조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출연 잔액의 15배수 범위내에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요율은 기업 대출 평잔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25/1,000이며, 기술보증기금은 1.35/1,000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5/1,000로 의무 출연요율이 지극히 낮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요율을 0.7/1,000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말까지 조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은 〈표 2-17〉과 같다. 2025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총 5조 9,639억 원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조 3,04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8,722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4,015억 원 순이다.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지원을 한 후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보전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대부분 정부 및 지자체, 금융회사에서의 특별 출연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3,205억 원이며 군구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에 따른 손실보전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7〉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현황(2025년 말 현재)

(단위 :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강원	2,623	2,710	2,764	2,756
경기	11,970	12,633	12,699	13,047
경남	3,237	3,380	3,476	3,562
경북	3,183	3,361	3,601	4,015
광주	1,818	1,988	2,056	2,101
대구	2,383	2,569	2,855	2,914
대전	1,751	2,050	2,072	2,105
부산	3,224	3,231	3,340	3,331
서울	9,785	9,477	8,547	8,722
세종	275	342	407	472
울산	1,428	1,522	1,577	1,581
인천	**3,299**	**3,146**	**3,066**	**3,205**
전남	2,145	2,390	2,623	2,561
전북	2,275	2,453	2,694	2,664
제주	1,400	1,437	1,359	1,118
충남	2,972	3,365	3,397	3,456
충북	1,929	2,032	2,157	2,031
계	**55,697**	**58,085**	**58,691**	**59,639**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5 연차보고서

〈표 2-18〉은 전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현황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총 보증 규모는 기본재산의 총 15배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신용보증재단의 평균 운용 배수는 평균 7.31이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이 10.94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말 기준 보증공급은 28조 3,809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43조 5,849억 원이다. 대위변제액 순증은 2조 2,084억 원이며 전국신용보증재단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이 4,465억(2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현황(2025년 말 현재)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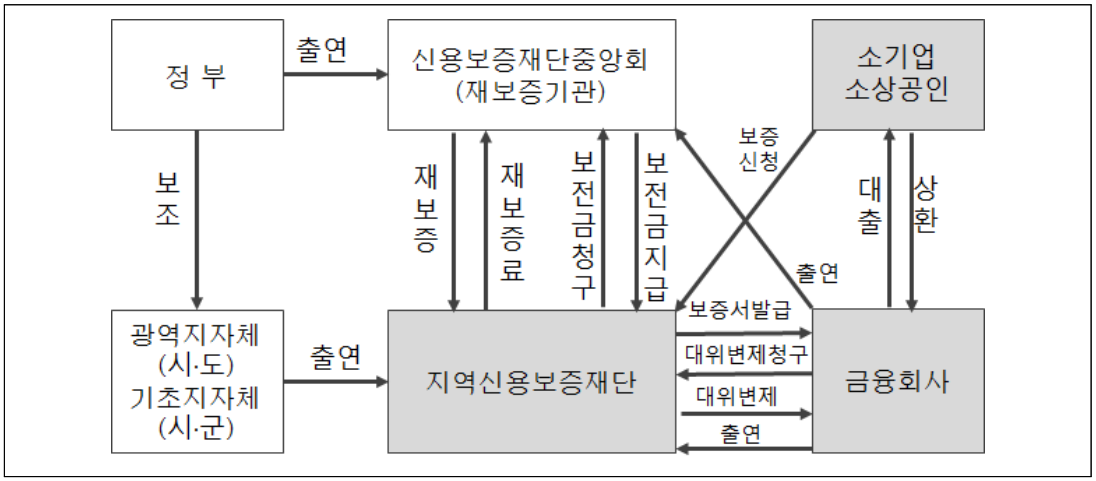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	운용배수 (배)	대위변제액 (순증)	대위변제율
강원	12,287	17,914	6.50	843	4.70
경기	49,606	79,834	6.12	4,465	5.59
경남	19,126	25,860	7.26	1,199	4.63
경북	19,454	28,586	7.12	1,410	4.93
광주	7,427	11,939	5.68	659	5.52
대구	26,685	31,875	10.94	1,662	5.21
대전	13,238	19,596	9.31	840	4.29
부산	18,243	29,771	8.94	2,247	7.55
서울	35,674	69,556	7.97	2,839	4.08
세종	2,597	3,837	8.13	185	4.82
울산	7,199	9,622	6.09	331	3.44
인천	**12,905**	**20,086**	**6.27**	**1,261**	**6.28**
전남	9,386	12,985	5.07	478	3.68
전북	13,645	20,054	7.53	856	4.27
제주	6,226	10,132	9.06	744	7.34
충남	19,631	29,039	8.40	1,529	5.26
충북	10,479	15,163	7.47	538	3.55
계	**283,809**	**435,849**	**7.31**	**22,084**	**5.07**

출처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2025년연차보고서

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구조 및 재보증현황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구조는 〈그림 2-1〉과 같이 채무자인 기업, 채권자인 금융회사,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관의 삼자 간 관계에 의한 금융 중개구조로 구축되어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공신력이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 시스템이다(노용환, 2009).

[그림 2-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기본 구조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재구성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독특한 점은 재보증제도[6]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30~80%)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하고, 지역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전금 청구요청을 하면 재보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신보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보증제도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보증 재원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보증규모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규모에 재보증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25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 소상공인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하여 23조원의 재보증 운영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적시 지원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별 재보증 잔액을 〈표 2-19〉에서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4조 1,86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3조 6,665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잔액은 현재 재단 보증 잔액의 절반수준인 1조 723억 원이다. 신보중앙회는 지속된 경기침체 및 각종 비용증가로 인해 사업장 매출 회복 지연에 따라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재보증 한도를 연 18회 탄력적으로 배정하여 적재적소에 보증지원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5년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산불화재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1, 2차 추경을 통해 총 재보증 한도 약 1.2조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보증공급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6) 재보증제도 : 우리나라 재보증 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 금액의 범위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1995년 7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였다.

'26.6.22자 창업경영신문 기사[7]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보증재단의 보증 제도의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 신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재보증 없이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현재 50% 이상의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지역신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저 신용자 대상 보증은 50~60% 수준의 재보증비율을 유지해 금융지원 축소를 방지한다고 하였다.

〈표 2-1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지역별 재보증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재보증 공급액					재보증 잔액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4	2025
강원	4,783	5,968	6,092	5,994	6,378	8,007	9,217	9,451	9,455	9,285
경기	27,577	33,311	27,673	25,425	25,853	45,692	51,079	48,223	43,849	41,865
경남	7,736	9,865	8,489	8,633	9,928	12,901	14,724	13,952	12,979	13,506
경북	6,321	7,954	7,414	7,848	10,164	13,854	14,264	13,839	13,169	15,026
광주	2,868	3,238	3,795	3,657	3,914	6,810	6,780	6,482	6,109	6,302
대구	7,447	8,409	7,811	11,792	13,945	13,602	13,552	12,543	15,345	16,920
대전	5,092	6,883	6,903	6,651	6,848	7,955	9,171	8,774	9,089	10,164
부산	9,345	10,721	9,484	9,384	9,575	13,957	15,727	15,772	15,752	15,747
서울	29,180	22,386	16,936	16,692	18,931	54,662	56,642	51,659	42,683	36,665
세종	-	665	678	1,064	1,316	-	655	1,224	1,663	1,968
울산	2,894	3,549	3,128	3,343	3,724	4,531	4,946	4,683	4,524	5,022
인천	**6,852**	**7,507**	**6,110**	**6,425**	**6,824**	**12,083**	**12,494**	**11,914**	**10,828**	**10,723**
전남	3,032	4,475	3,750	4,030	4,957	6,950	7,236	6,738	6,162	6,955
전북	2,940	3,846	3,970	5,168	7,009	6,905	7,682	7,871	8,686	10,368
제주	2,748	3,160	3,260	3,494	3,290	3,999	4,707	5,248	5,413	5,363
충남	7,682	9,145	10,202	9,410	10,140	13,475	14,778	14,634	14,560	15,103
충북	3,603	4,702	4,179	3,697	5,465	6,241	7,122	6,871	6,848	8,037
계	**130,100**	**145,784**	**129,874**	**132,707**	**148,263**	**231,354**	**250,776**	**239,878**	**227,114**	**229,017**

출처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2025년연차보고서

7) 2026.6.22자 창업경영신문 기사 "정부,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

4.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7월 말 현재 직원 수는 115명이고 전체 10개영업점에서 총 9,952억 원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현재 보증잔액은 2조 2,215억 원이고 전국신용보증재단 평균 보증잔액 2조 6,871억 원 대비 82.7%수준이며 순사고율은 5.2%로서 전국 재단 평균 4.62%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7월 말 기본재산은 〈표 2-20〉과 같이 3,619억 원이며 기본재산 대비 운용 배수는 6.14이다. 기본재산 대비 운용배수는 전국신용보증재단 평균 6.79에 비해 낮은 편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표 2-20〉 전국신용보증재단 대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2026.7월말기준)

(단위 : 명, 억 원, %)

구 분	인천신용보증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평균)
기본재산	3,619	3,960
운용배수	6.14	6.79
영업점수	10개	12개
직 원 수	115	127
보증공급액(억 원)	9,952	11,757
보증 잔액(억 원)	22,215	26,871
순사고율(%)	5.2	4.62
순대위변제율(%)	3.15	3.3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6.7월말 보증통계」

〈표 2-21〉 인천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공급 및 잔액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증공급	전체기업(a)	11,420	12,119	13,116
	소상공인(b)	11,209	11,420	12,852
	비중(b/a)	98.2	94.2	98.0
보증잔액	전체기업(a)	22,070	20,206	20,421
	소상공인(b)	21,774	19,930	20,093
	비중(b/a)	98.7	98.6	98.4

(주) 보증공급액은 실행금액과 기한연장금액을 합계한 금액이며, 신용보중재단중앙회는 조회일 기준 기업규모로 작성했고, 지역구분 없이 작성해서 〈표 2-22〉와 〈표 2-23〉과 차이 발생함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통계」 각 년도

〈표 2-21〉과 같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보증공급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12,852억 원(98.0%), 보증잔액이 20,093억 원(98.4%)으로 전체 보증지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으로 소진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 보증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증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최일선에서 전문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상품개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행정구역은 2025년 말 기준으로 8개 구와 2개의 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역별 보증 대상 기업체 수는 서구가 72,941개로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남동구 61,943개(17.4%), 부평구 52,508개(14.8%), 미추홀구 44,742개(12.6%), 연수구 41,551개(11.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025년 보증공급 기준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2,819억 원(21.8%), 남동구 2,241억 원(17.3%), 부평구 1,793억 원(13.9%), 미추홀구 1,690억 원(13.1%), 연수구 1,579억 원(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대상 업체수가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많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가장 작은데 보증공급액을 보면 보증 대상 업체의 크기 순으로 보증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군구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업체수, 억 원, %)

구분	보증대상기업수		2024년보증공급			2025년보증공급		
	전체	소상공인	업체수	금액	점유비(금액)	업체수	금액	점유비(금액)
강화군	10,313	9,862	825	247	2.1	871	270	2.0
옹진군	2,798	2,690	230	66	0.5	278	82	0.6
중 구	27,145	24,591	2,765	830	6.9	2,871	951	7.4
동 구	11,536	10,881	1,404	413	3.5	1,484	467	3.6
미추홀구	44,742	41,752	5,485	1,592	13.3	5,498	1,690	13.1
연수구	41,551	37,427	4,405	1,350	11.3	4,691	1,579	12.2
남동구	61,943	55,738	6,817	2,094	17.5	6,883	2,241	17.3
부평구	52,508	48,719	5,656	1,713	14.3	5,784	1,793	13.9
계양구	30,231	28,161	3,424	1,026	8.6	3,351	1,044	8.1
서구	72,941	66,006	8,610	2,626	22.0	8,437	2,819	21.8
합계	**355,708**	**325,827**	**39,621**	**11,957**	**100**	**42,148**	**12,936**	**100**

(주) '26.7.1일자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으로 현재는 9구 2군이지만 종전의 8구 2군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업체수와 금액이 일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앞의 〈표 2-21〉와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차이가 발생하지만 군구별 비중을 보기 위해서 본표 작성함

출처 :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통계」 각 년도

2. 통계청의「'23년기준 군구별 기업규모별 사업체현황」중에서 활동사업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군구별 보증잔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3〉과 같다. 2025년말 보증잔액을 보면 서구가 4,332억 원(21.4%), 남동구 3,475억 원(17.2%), 부평구 2,845억 원(14.1%), 미추홀구 2,733억 원(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 대상 업체 수가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많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가장 작은데 2025년 보증잔액 점유비를 보면 보증대상 업체 크기 순으로 점유비가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군구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업체수, 억 원, %)

구분	보증대상기업수		2024년보증잔액			2025년보증잔액		
	전체	소상공인	업체수	금액	점유비(금액)	업체수	금액	점유비(금액)
강화군	10,313	9,862	1,613	414	2.0	1,507	429	2.1
옹진군	2,798	2,690	716	152	0.8	540	147	0.7
중 구	27,145	24,591	5,756	1,475	7.4	5,378	1,528	7.6
동 구	11,536	10,881	2,685	663	3.3	2,507	683	3.4
미추홀구	44,742	41,752	11,098	2,808	14.0	10,206	2,733	13.5
연수구	41,551	37,427	8,503	2,281	11.4	8,236	2,466	12.2
남동구	61,943	55,738	13,828	3,481	17.4	12,583	3,475	17.2
부평구	52,508	48,719	11,055	2,865	14.3	10,275	2,845	14.1
계양구	30,231	28,161	6,763	1,694	8.5	6,045	1,586	7.8
서구	72,941	66,006	15,503	4,178	20.9	14,824	4,332	21.4
합계	**355,708**	**325,827**	**77,520**	**20,011**	**100**	**72,101**	**20,224**	**100**

(주) '26.7.1일자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으로 현재는 9구 2개군이지만 종전의 8구 2개군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업체수와 금액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래서 앞의 〈표 2-21〉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차이가 발생하지만 군구별 비중을 보기 위해서 본 표 작성함

출처 :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통계」 각 년도

2. 통계청의 「23년기준 군구별 기업규모별 사업체현황」중에서 활동사업체

인천신용재단의 업종별 보증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2025년 기준 전체 업종 중 도·소매업이 5,796억 원(28.4%)을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다음으로 음식·숙박업 4,729억 원(23.2%), 제조업 1,819억 원(8.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제조업 지원이 0.4%로 소폭 상승하였고, 도·소매업이 0.2%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 업종 중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점유비가 높은 이유는 타 업종 대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고령층이 쉽게 접근 가능함에 따라 업종 편중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경쟁구도의 심화로 이어져 생존율을 떨어 뜨리고 폐업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24〉 인천의 업종별 사업체 및 보증 잔액 현황

(단위 : 업체수, 억 원, %)

구 분	사업체		보증잔액	
	전체	소상공인	2024년	2025년
전산업	449,994 (100)	429,753 (100)	20,206 (100)	20,421 (100)
도·소매업	**127,378 (28.3)**	**122,879 (28.6)**	**5,786 (28.6)**	**5,796 (28.4)**
음식·숙박업	**44,663 (9.9)**	**42,370 (9.9)**	**4,688 (23.2)**	**4,729 (23.2)**
제조업	35,651 (7.9)	31,002 (7.2)	1,716 (8.5)	1,819 (8.9)
기 타	242,302 (53.9)	233,502 (54.3)	8,016 (39.7)	8,077 (39.5)

㈜ ( )은 비중

출처 : 통계청 「2025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통계」에서 가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5〉와 같다. 2025년 기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2조 93억 원(98.4%)로 가장 많이 지원 되었으며, 다음으로 소기업 267억 원(1.3%), 중기업 61억 원(0.3%) 순으로 지원 되었으며,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보증잔액 현황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40조 9,853억 원(9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 소기업 1조 3,175억 원(3.1%), 중기업 4,126억 원(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5〉 인천의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합계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전국	409,853	95.9	13,175	3.1	4,126	1.0	427,154	100
인천	20,093	98.4	267	1.3	61	0.3	20,421	100

㈜ : 전국보증잔액은 24년말 기준잔액임

출처 : 통계청의 「2025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금액별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6〉과 같다. 2025년 기준 3천만원 이하 보증이 8,468억 원(6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천만원 이하 2,596억 원(19.8%), 1억 원이하 1,734억 원(13.2%) 순으로 지원 되었으며, 3천만원이하 보증공급의 경우 전국의 비중이 54.0%인데 인천의 경우 64.6%로 10.6%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6〉 인천의 금액별 보증공급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 원이하	1억 원초과	계
인천	8,468	2,596	1,734	318	13,116
비중	64.6	19.8	13.2	2.4	100
전국	153,849	69,349	45,666	16,300	285,164
비중	54.0	24.3	16.0	5.7	100

(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금액 구간별 자료는 실행과 기한연장금액임
출처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2025년 연차보고서」,「보증 통계」 각 년도

인천시에서는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에 따른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이차보전을 통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7〉에서처럼 경영안정자금은 희망인천특례보증, 소공인지원보증, 취약계층보증, 청년창업보증, 상권활성화보증, 일자리 창출보증 등 총 6가지 종류가 있다.

소공인 지원보증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보증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 창업 보증은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39세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상권활성화 보증은 원도심지역 상권활성화 보증 및 도시정비 사업지역의 소상공인의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보증은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7〉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종류

종류	대상	내용	보증기간	보증료	이차보전액
희망인천 특례보증	인천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을 통한 저금리정책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	6년	0.8%	1.5~2.0%
소공인 지원보증	10인미만제조업	제조업의 뿌리로 일자리창출의 원천인 지역산업의 기반인 소공인에 대한지원	5년	0.8%	1.5~2.0%
취약계층 보증	사회적약자,금융소외소상공인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제적자립을 지원하여 금융복지 향상에 기여	5년	0.5%	1.5~2.0%
청년창업 보증	39세이하창업,5년이하청년	초기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청년창업성공률 및 경제력 제고	5년	0.8%	1.5%
상권활성화 보증	도시정비구역, 전통시장등에영업중인자	원도심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정비사업지역의 소상공인 보호	5년	0.8%	1.5%
일자리창출 보증	인천시일자리창출우수기업선정등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자금지원	5년	0.8%	1.5~2.0%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 규정 관리(자료실)

연도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은 〈표 2-28〉과 같으며 23년에 2,162억 원, 24년에 2,518억 원, 25년에 2,888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2-28〉 연도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2023	2024	2025	계
희망인천	1,615	1,966	2,282	5,863
소공인지원	16	100	125	241
취약계층	129	100	100	329
청년창업	150	125	127	402
상권활성화	150	125	128	403
일자리창출등[8]	102	102	126	330
계	2,162	2,518	2,888	7,568

㈜ 각년도에 배정된 예산액중 연도 이월 발생으로 지원 실적 수치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 2023~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운영계획(지원계획)

8) 일자리창출 지원은 97억 원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5억 원으로 총 102억 원 지원함

제3절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1. 신용보증지원 효과성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기관에서 지원한 신용보증이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신용보증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성 있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 선행 연구 부터 살펴보면 Craig et al.(2005)에 의하면 신용보증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ang(2007)의 연구에 의하며 신용보증을 지원한 기업과 지원하지 않는 기업의 성과를 비교하였을 때 신용보증 기간과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오히려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의 수익성, 매출액, 부가가치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용보증제도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지 못 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공표한 신용보증 정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에 보증 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과 고용 성장률을 OLS(Ordinary Least Squares)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지원후 1년차 13%p, 2년차 25%p, 3년차 31%p가 각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봉희 외(2008)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들중 경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재무 자료가 입수 가능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으로 보증을 이용한 664개 업체의 성과를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이용한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부가가치율의 증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이후 연구개발의 투자 비율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 그리고 부가가치율의 증가는 특히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벤처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성장률은 보증 이후 감소하긴 하였으나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열(2008)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증을 받은 기업 1,601개 업체와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 899개 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과 분석 방법은 다항로짓모형과 토빗모형(Tobit)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높았다. 다만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한계기업의 지원에 따른 구축효과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토빗모형 분석 결과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이 무보증 기업에 비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높으나 고용창출 효과는 미비하며 오히려 보증 후 3년차에 가면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영중 외(2009)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개발기술, 수출금융, 중소 벤처 협동화, 구조 개선 등 5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과 자산이 증가 되었고, 수익성과 생산성이 개선되어 경영성과에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후 기업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증대되고, 수익성과 생산성비율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안정성과 유동성은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 결과 안정성의 비율을 제외한 기업규모, 생산성, 수익성 등 대부분의 재무비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정책자금의 지원 기간이 장기일수록 지원 성과가 높아 향후 정책지원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찬수(2009)는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식을 이용하여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자산의 수익률과 매출 영업이익률은 보증을 지원 받은 기업이 비 보증기업에 비해 각각 0.46%, 0.71% 정도 높았고, 매출액의 증가율과 부가가치의 증가율은 보증기업이 비 보증기업에 비해 각각 8.77%, 13.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용환(2010)은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기업 패널자료 분석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제적 파급경로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약 10여 년간의 월별 보증 잔액 규모, 중소기업 대출의 규모, GDP 등 세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투자, 통화량, 이자율 등의 변수를 조합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9]의 충격 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보증은 이자율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기대응 정책 수단으로 나타났다.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보증의 부가가치창출 기여도는 호경기에 감소하고

9) 벡터자기회귀모형은 거시경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중에 하나로 각 경제변수 들 간의 시계열을 서로 연관시키기 위해 모형 내의 모든 과거치를 이용한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은 환율이 오르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불경기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용보증은 그 성과에 있어서 금리에 비해 경기상승 제고 효과 반응기간이 더 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율상승은 보증 수요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보증은 다시 이자율 하락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두(2010)는 한국은행의 2005년 지역별 산업연관표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2009년 보증실적을 이용하여 지역신용보증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2009년 말 16개 시·도별 보증잔액을 반영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 시 보증확대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고, 신용보증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채희율(2013)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한 미시적자료와 외감자료를 결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신용보증이 수익성, 성장성, 재무건전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신용보증에 대한 지원효과는 기업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성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채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소동(2013)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신용보증제도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를 통해서 산출한 매출액증가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경제적효과인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산업간 투입구조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최종 수요증가액을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진욱(2013)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되었는지,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자금지원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지원은 효율적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자금지원 기간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16개 DMU중에서 CCR모형에서 43.67%, BCC모형에서 68.75%가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에서 비효율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입과 산출 요소의 개선 방안과 기관별 효율성 제고방안 및 정책적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봉 외(2013)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중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신용보증기금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신규 보증을 받은 기업과 보증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 효과를 처리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처리효과분석중 로짓분석 결과는 업력은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이 작을수록, 총자산회전율이 클수록 보증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여부 분석을 위하여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안정성 등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장성에서 보증기업은 보증을 받지 않을 경우보다 1년후 매출액 증가율이 7.35% 상승, 수익성에서는 총자산 순이익률이 0.4% 상승, 활동성에서 총자산회전율이 9.3% 상승, 생산성은 총자본투자효율이 1.67% 상승,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이 0.44% 상승하였다.

윤상용(2013)의 연구에 의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 낮아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아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자금의 지원 목적과 소상공인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수립을 제안했다. 지원 목적별로 시장실패의 보완은 정부가, 정책목적성을 위한 사업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하면서, 기업특성별로 혁신기업에는 지원규모를 크게, 신생기업에는 보증비율 혹은 이차보전을 늘려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성호 외(2014)는 신용보증의 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효과에 관해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보증여부 및 보증규모는 신규 고용 및 고용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보증 1년후 1.6%~2.0%, 2년후 3.0%~3.3%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용보증 정책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직접적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보증이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정렬 외(2014)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를 통해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분석과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생산증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한 미시적 성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과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용보증 지원은 부가가치 창출, 생산증대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용 창출효과의 경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년후 매출액 증가율로 연구하였을 때 보증기업은 비보증기업보다 성장성이 7.35%, 수익성은 총자산수익률이 0.4%, 생산성은 총자본 투자효율이 1.6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란(2020)은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5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은 지역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지역별·업종별로 경제적 특성에 따라 경제적파급효과가 다르다. 지역금융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속가능할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으며, 각 지역보증재단은 관할지역의 유발효과를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민(2021)은 울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2019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지원 금액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규 보증 금액의 투입에 비례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공급 확대와 정책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과 관련한 논문 및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성과 분석,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앞 자금지원 후 경제에 미치는 효과성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소상공인은 생존 주기가 짧고 기본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사회에서 소상공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업체 수는 전체 기업체 수 중 95.2%나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이루고 있고, 전체 종사자 중 45.9%가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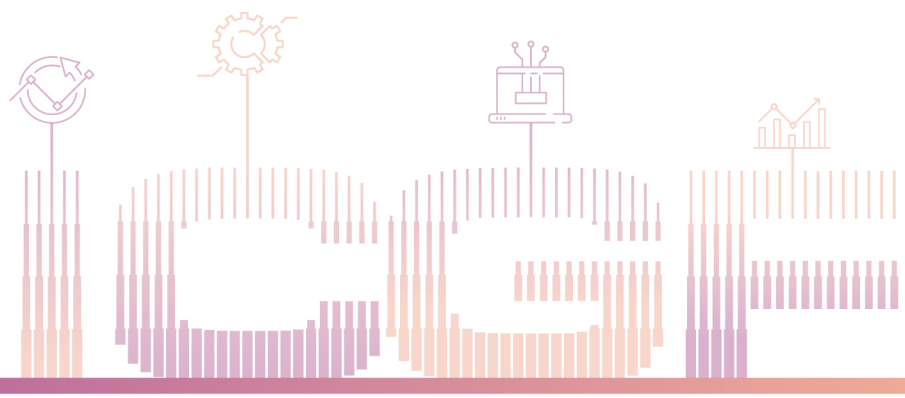
본 연구와 기존의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연구들은 신용보증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용보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인천시에 최근 고물가·고환율·저성장에 따른 대내외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근 3년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희망인천 특례보증, 취약계층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공급한 신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인천의 10개 군구별로 구분하여 업종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특정 업종에 보증 투입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군구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2019년과 2022년 그리고 2025년의 보증 투입량 대비 경제 파급효과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특정 업종에 보증 투입량을 달리 하였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조사방법



제1절

산업연관분석

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은 생산활동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산업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보통 1년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간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라 한다(한국은행, 2015).

산업간 생산물 순환은 생산부문 상호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소득에서 제외되는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국민소득분석이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 수준을 표시하는 장점을 지녔다면, 산업연관분석은 구조적 측면에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 고용, 소득 증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레온티에프 교수(Wassily W. Leontief)에 의해서 국민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 도구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창시되었다. 그는 미국경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경제표의 형태로 표현하고 1936년에 그 분석 결과를 미국 경제 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 산출 관계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이 산업연관분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모형은 통상 다음 4가지 가정하에 작성한다.

첫째,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하며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관계에 있다는 가정이다.

둘째, 요소들 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등생산량곡선은 L자형이 되며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셋째,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s)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가정으로서 생산요소를 10% 증가시키면 산출물도 10%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산업마다 하나의 단일 생산함수를 가정하는 것이다.

넷째, 가법의 가정이다. 이 가정은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활동의 효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효과와 같다는 것이다(한국은행, 2015).

산업연관모형은 국가의 경제구조와 국민경제의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이 보여줄 수 없는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등 산업연관 관계를 중간 과정 부문과 최종수요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경제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측하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연관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투입계수가 일정 불변이라는 가정은 기술 진보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각 생산물은 하나의 산업에 대응된다는 가정 또한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가정 상의 문제점을 제외하더라도 산업 연관 모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에 있어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불구하고 분석 결과의 활용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박응삼, 2016)

2.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3-1〉과 같다. 가로방향인 행 방향은 배분구조로 생산물의 판매 내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각 산업 부문의 생산물이 어느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되었는지 또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소비되고 투자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총수요액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수입을 제외한 것을 총 산출액이라고 한다. 이때 각 산업 부문의 총 산출액과 이에 대응되는 총 투입액은 항상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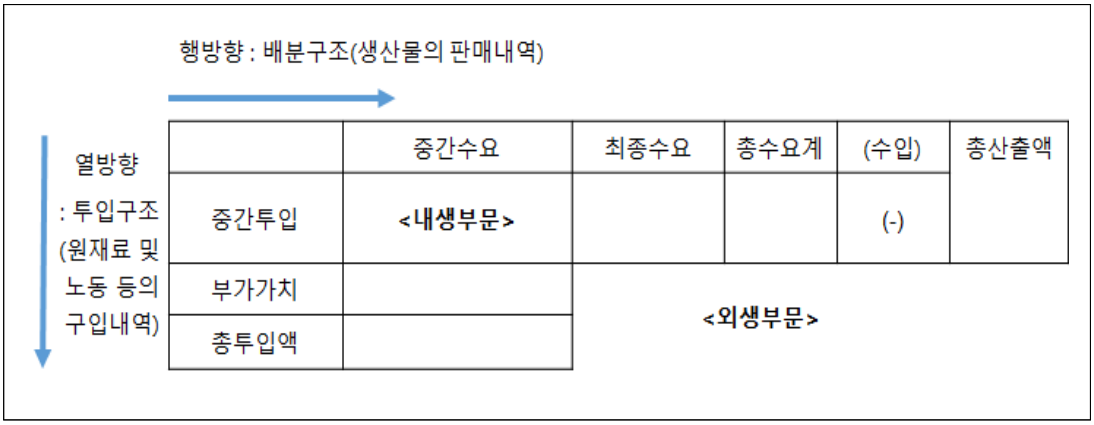
세로방향인 열 방향은 투입 구조를 나타내며, 각 산업부문의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조이다. 투입 구조는 원재료 등의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이나 자본 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를 총 투입액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연관분석 혹은 투입산출분석은 일정 경제활동 기간 동안 산업간 투입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최종 수요증가액을 외생변수로 부여한 후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이 이렇게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산업연관표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어 경제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분권화 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내 산업간 또는 지역외 산업간 상호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림 3-1]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출처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 해설

제2절

지역산업연관의 분석

1. 지역산업연관표의 개념

지역별로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고, 지역·산업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산업연관표가 바로 지역산업연관표이다. 지역산업연관표에는 한 지역 내의 경제구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여러지역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간 산업연관표가 있다(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표의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이후 지역 경제의 개발정책과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내 산업간의 연관효과 또는 다른 지역과의 상호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장점은 각 지역의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간 상이한 생산구조나 교역상태를 반영하고, 지역과 산업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량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산업구조와 정책 효과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한국은행, 2015)

김성록(2013)은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은 얼마나 신뢰성 있는 지역자료를 구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즉, 지역간 산업연관표가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직접 조사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면 이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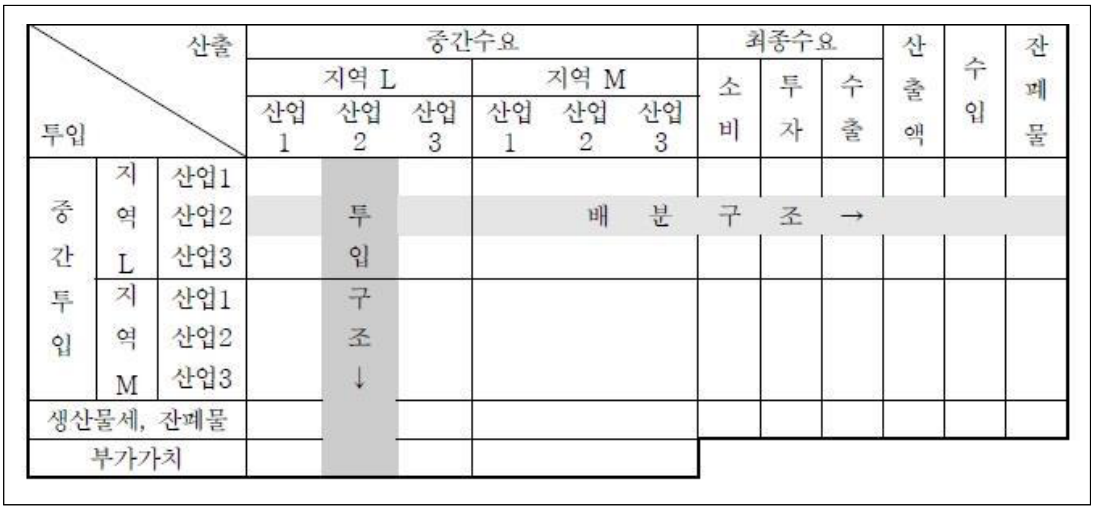
그러나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이유로 지역 차원에서 직접 조사를 통한 산업연관표의 작성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2차 지역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다 한국은행이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작성에 이용된 추계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2007년에 국내 최초로 2003년 기준 6개 권역[1]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5년 기준의 16개 광역시로 구분하여 작성·발표하였다.

이후 2015년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공표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는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를 도식화 한 것으로 〈그림 3-2〉와 같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산업연관표와 유사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부문 간 중간재 거래를 나타내는 중간수요 및 중간투입과 각 산업부문에서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를 기록하며, 각 생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내역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분하여 기록된다(한국은행, 2015).

[그림 3-2]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출처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2. 지역산업연관표의 유형

가.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는 Isard와 Chenery-Moses 등이 개발한 지역산업 연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형식은 지역간 산업연관표이고, 이입품과 수입품을 구분한 비경쟁 수입의 이입형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Isard모형의 특징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상품이라고 하여 비경쟁 이입형으로 취급하고 있다(김성록, 2013).

---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이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것과 소비 및 투자의 최종재로 사용되는 것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항목에는 이출이 포함되지 않는다(한국은행, 2014).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	지역 r	지역 1	…	지역 r	
			산업1 … 산업n	산업1 … 산업n	산업1 … 산업n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국산투입	지역 1	산업1 : 산업n	Z_{11}	투입구조 ↓	Z_{1r}	Y_{11}^{d}	…	Y_{1r}^{d}	X_1
	:	산업1 : 산업n			배분구조 →				
	지역 r	산업1 : 산업n	Z_{r1}		Z_{rr}	Y_{r1}^{d}	…	Y_{rr}^{d}	X_r
수입투입		산업1 : 산업n	M_1		M_r	Y_1^{m}	…	Y_r^{m}	
부가가치			V_1		V_r				
지역내 산출액			X_1		X_r				

출처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 해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산업 간 연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확산효과와 환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지역의 모형을 사용할 경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재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 파급된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역·산업 간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각 지역의 산업 부문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와 부재료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알 수 있어 지역·산업 간 투입·산출 관계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응삼, 2016).

나.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지역산업연관표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는지, 다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단일 지역의 산업연관표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수 지역의 산업연관표는 여러지역간 상호 교역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다수지역의 산업연관표는 조사방법에 따라 다시 지역간 산업연관표와 타지역 산업연관표로 구분된다. 단일 지역의 산업연관표는 일반적으로 지역내 산업연관표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만을 나타낸다(한국은행, 2014).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종 수요에 포함되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제한 것이 지역내 총 산출액이 된다. 타 지역생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는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 3-4〉의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와 같다.

[그림 3-4]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	이입	지역내
		산업1	…	산업n	중간수요계	소비	투자	수출	이출	최종수요계	(공제)	(공제)	산출액
내생부문	산업 1	X_{11}	투입구조 ↓	X_{1n}	W_1	C_1	I_1	E_1	O_1	Y_1	M_1	N_1	X_1
	:			배분구조 →									
	산업n	X_{n1}		X_{nn}	W_n	C_n	I_n	E_n	O_n	Y_n	M_n	N_n	X_n
	중간투입계	U_1		U_n									
외생부문	피용자보수	R_1		R_n									
	영업잉여	S_1		S_n									
	고정자본소모	D_1		D_n									
	기타생산세	T_1		T_n									
	부가가치계	V_1		V_n									
지역내 산출액		X_1		X_n									

출처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 해설

지역내 산업연관표는 해당 지역내 산업간 거래관계가 상세하게 표시되지만, 타지역과 이출, 이입이 일괄적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지역간 또는 산업의 거래관계를 상세히 파악할 수 없어 다른 지역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박응삼, 2016).

3. 지역산업연관표 분석 방법

지역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 관계를 통한 지역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한 산업에 대한 수요 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이춘근, 2007).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경제기반모델, 수입-지출모델, 그리고 산업연관모델이 있다. 전자의 두 모델은 주로 소규모 지역경제 분석에 이용되지만,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Fletcher, 1989).

전국산업연관모델은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경제효과가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 지역간 상이한 생산구조나 교역상태를 반영하여 지역 및 산업간 상호의존 관계를 분석 해줌으로써 전국산업연관분석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을 반영해주기 때문이다(이충기, 2009).

이춘근(2007)은 지역산업연관 분석론에서 지역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비용 인상요인(cost-push factors)에 의한 물가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즉 산업 상호간의 직접 및 간접 가격파급구조를 정확히 계측할 수 있고, 각 산업부문 생산물가격 형성에서 큰 역할을 하는 원가 상승압력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경제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임금, 이윤 등 비용인상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받는 물가 구조에서는 보다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된다.

넷째,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기술과 산업구조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국민경제 내지 지역경제의 총체적인 소득순환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인 경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산업연관분석의 주요 영역과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 간의 경제 분석이나 산업구조분석은 물론이고 여러 국가간, 여러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경제분석에 활용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나 에너지 경제분석 동학모형(dynamic model),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 선형계획 모형과의 결합, RCGE 모형(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까지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은행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일반적으로 실측조사 방법(survey method)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각 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원재료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업종별로 신용보증을 받은 보증수혜업체의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일정 경제활동기간(1년) 산업간 투입구조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23~ ’25년 인천지역에 공급되었던 신규 보증공급액을 투입변수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지역산업연관 분석관련 유발계수

1. 투입계수

투입계수[2]를 측정하는 방법은 실제 조사법과 비교 조사법이 있으나, 실제 조사법에 따라 지방 투입계수를 측정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실제 조사법을 사용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최초로 발간하기 전까지는 비조사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계 하는데 그쳤다(한국은행, 2015).

투입계수란 각 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투입한 중간재와 부가가치의 구성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투입계수는 중간 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중간 투입계수와 부가가치의 각 항목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부가가치 계수로 구분된다(한국은행, 2015).

지역산업연관표의 경우 중간 투입물은 생산지역에 따라 지역 내 생산품 및 타지역 산출물과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으로 구분되며, 타지역 산출물은 다시 생산된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는 크게 지역 내 투입계수표, 지역 간 투입계수표 및 수입 투입계수표로 구분된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그림 3-4〉의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연관표가 지역 1, 지역 2라는 두 지역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역 1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자기 지역 및 타 지역에서 구입한 중간재(Z11, Z21), 수입중간재(M1) 및 부가가치(V1)를 지역내 산출액(X1)으로 나눈 값이 투입계수이다.

$$\text{투입계수} : a_{ij} = \frac{x_{ij}}{\boldsymbol{X}_j}, \quad \text{부가가치계수} \ v_j = \frac{\boldsymbol{V}_j}{\boldsymbol{X}_j}$$

2) 투입계수란 특정 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등의 중간 투입액과 부가가치를 그 특정 부문의 총 투입액으로 나눈 산출 계수이다.

2. 생산유발계수

각 산업[3]은 생산활동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우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간의 직·간접적으로 연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생산유발계수이다.

생산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게 된다. 도출 과정에서 역행렬이 이용되므로 생산유발계수를 역행렬 계수 또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계수라고도 한다.

3.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발생하면 산출이 유발되며 산출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산출된다. 이는 부가가치율을 생산유발계수에 적용하여 최종수요와 부가가치 유발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이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효과를 의미한다.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라 각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계산하려면 부가가치 계수 합계의 대각행렬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최종수요의 변화는 국내 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변동은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연료 등 중간 투입물과 노동 및 자본 등의 원천적 투입물이 필요하다.

부가가치계수란 이러한 원천적 투입물에 대한 대가인 보수와 영업잉여금 등의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계수란 어떤 산업에서 생산한 산출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단위를 말한다(한국은행, 2015).

---

3) 생산유발계수에서 산업은 동일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4. 취업유발계수

최종 수요 발생이 산출을 유발하고 산출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수요발생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이용상 주의할 점은 고용은 임금근로자만 포함하며, 취업은 임금근로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국산품 수요가 10억 원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 환산 취업자수[4]를 의미한다.

즉, 최종 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효과에 기반을 두어 최종 수요와 취업유발을 연결함으로써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이 끝난 후 생산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 요인을 통해 산업 부문별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부문별 취업유발계수를 작성하고, 이 취업유발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한 취업유발계수 등을 이용해서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5.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의 최종 수요가 10억 원 증가했을 때 해당 산업뿐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유발되는 임금 근로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5.2명/10억 원 이면 그 산업에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 했을 때 생산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약 5.2명의 임금근로자 고용이 유발되었다는 것이다. 고용유발계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직접 고용효과와 간접 고용효과로 나누어지며 직접 고용효과는 해당 산업 자체에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근로자이고 간접 고용효과는 그 산업에 원재료·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다른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근로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용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하며 취업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사업주 본인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간의 차이가 제조업 등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4)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 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고용량 측면의 취업자 수

제4장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지역경제유발효과와 군구별 경제유발 효과



제1절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경제유발효과 분석

1. 인천 전지역의 업종별 경제유발계수

지역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하여 업종별로 투입된 신용보증금액별 경제유발효과를 업종별 유발계수로 재분류하여 분석하면 2025년 인천의 업종별 유발계수는 〈표 4-1〉과 같이 산출된다. 인천지역의 유발계수[1]는 지역내 유발계수와 지역외 유발계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2025년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인천지역내에서는 1.2, 인천지역 외에서는 0.7, 전체 1.9로 나타났다.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431.1이고 다음으로는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으로 22.0으로 나타났다. 분류한 33개 업종 중 지역 외 대비 지역내 유발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외 보다는 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총 0.8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천지역 내 유발계수는 0.5이고, 인천지역외 유발계수는 0.3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가장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최종 수요가 발생하면 타 지역에 생산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을 하는데, 이는 취업유발계수로 측정할 수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되었을 때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투입된 신용보증금액을 업종별로 재분류하여 유발계수를 분석한 결과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는 총 13.9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산업구조 중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이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월 한성민[2]이 울산신

1) 해당 지역 유발계수는 해당지역에서 해당 산업이 다른 산업의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나고 타 지역 유발계수는 해당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발계수를 합하여 유발하는 정도이다. 즉 전지역 유발계수 = 자기지역유발계수 + 타지역 유발계수

2) 2021년 2월, 한성민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기반 소상공인대상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유발효과 추정」

용보증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전력, 가스 및 증기업이고 다음이 농림어업 순으로 나타났는데 농림어업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는 보증공급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산출 결과와 고용계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전 산업기준 고용유발계수는 7.4이고 고용계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2025년 기준 인천의 업종별 단위 보증공급액당 경제유발계수[3)]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전국	지역내	지역외	전국	지역내	지역외		
농림어업	14.1	1.7	12.4	7.0	0.7	6.3	28.6	1.2
광 업	0	0	0	0	0	0	0	1.8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10.8	2.1	8.8	2.5	0.4	2.1	2.6	1.6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3.0	1.2	1.9	0.6	0.2	0.4	1.0	1.7
목재및종이,인쇄업	6.5	2.0	4.5	1.9	0.5	1.4	2.3	2.4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0	0	0	0	0	0	0.1
화학제품제조업	9.5	1.8	7.8	3.1	0.7	2.4	1.7	1.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6	3.2	7.4	3.0	0.7	2.3	2.6	1.8
1차 금속제품제조업	9.5	1.5	7.9	1.9	0.3	1.6	0.9	0.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2	1.5	2.7	1.5	0.6	0.9	1.4	2.2
컴퓨터·전자·광학기기	3.4	1.3	2.1	1.0	0.3	0.7	0.6	1.1
전기장비제조업	4.4	1.4	3.0	1.2	0.4	0.8	0.9	1.3
기계및장비제조업	1.7	1.1	0.6	0.6	0.4	0.2	0.5	2.0
운송장비 제조업	10.2	1.9	8.4	2.2	0.4	1.8	1.7	1.1
기타 제조업	1.6	1.1	0.5	0.5	0.3	0.2	0.6	3.2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18.6	2.5	16.0	9.6	1.4	8.2	10.7	4.5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0	0	0	0	0	0	0.5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22.0	12.1	9.9	10.4	5.4	5.0	12.5	3.7
건설업	1.1	1.0	0.1	0.5	0.5	0	0.7	4.4
도매및소매업	1.3	1.1	0.3	0.7	0.6	0.1	1.2	4.7
운수업	1.7	1.2	0.4	0.7	0.5	0.2	1.2	4.1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1.1	1.0	0.1	0.3	0.3	0	1.1	4.6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4.8	1.2	3.6	2.5	0.6	1.9	2.4	3.7
금융및보험서비스업	431.1	121.1	310.0	265.4	74.5	190.9	146.0	2.8
부동산및임대업	2.7	2.1	0.6	2.1	1.6	0.5	0.5	1.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7	1.5	2.2	2.0	0.9	1.1	2.2	4.5
사업지원서비스업	3.3	1.9	1.4	2.2	1.3	0.9	3.6	8.3

3)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원당 계수이며,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10억당 계수임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전국	지역내	지역외	전국	지역내	지역외		
공공행정및국방	19.2	13.9	5.4	14.4	10.3	4.1	15.9	7.8
교육서비스업	1.0	1.0	0	0.7	0.7	0	1.3	8.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6	2.4	1.2	2.2	1.5	0.7	3.8	9.7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1.1	1.0	0.1	0.6	0.6	0	1.4	4.6
기타서비스	1.1	1.1	0.1	0.5	0.5	0	1.8	8.0
기 타	0	0	0	0	0	0	0	0
전산업	**1.9**	**1.2**	**0.7**	**0.8**	**0.5**	**0.3**	**13.9**	**7.4**

2. 인천 전지역의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가. 2023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2023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자료를 투입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표 4-2〉와 같이 2023년 33개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2023년도 당해연도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2,317억 원으로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4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654억 원이 지원 되었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에 593억 원이 지원 되었다.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795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증금액 투입대비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33개 업종에 대해 각각의 유발효과를 지역 내와 지역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지역내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이 67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 외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이 21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91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41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지역 내와 지역 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335억 원, 8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영안정자금의 연계 보증으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의 약 63.0%,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약 65.5%가 인천지역내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보증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천지역 내부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동시에 타지역과의 산업연계를 통해 외부 지역에도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3,28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722명이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으로

711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금액의 투입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395백만 원을 투입하였을 때 20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보증금액의 투입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60억 원의 보증지원을 투입하여 33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73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375명이고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이 334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4.9.13일자"희망인천 특례보증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3년도에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들 중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1.3%였으며 응답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약 1,317명인 것으로 조사[4]되었는데 고용유발효과와 비교했을 경우 의미있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2〉 2023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5]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국	지역내	지역외	전국	지역내	지역외		
농림 어업	395	100.6	9.3	91.3	50.0	3.9	46.1	205	12
광 업	20	2.4	0.4	2.0	1.0	0.2	0.8	1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2,526	261.2	50.7	210.5	58.5	8.6	49.9	63	42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1,356	50.2	16.3	33.9	11.0	3.2	7.7	16	8
목재및종이,인쇄업	951	61.5	18.5	43.0	17.8	4.9	12.9	21	14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30	71.7	15.7	56.0	15.7	1.9	13.9	1	0
화학제품제조업	1,593	150.1	27.8	122.3	48.3	10.3	38.0	26	1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70	21.5	5.7	15.8	6.2	1.3	4.9	5	4
1차 금속제품제조업	220	47.3	5.0	42.3	9.3	1.0	8.3	5	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826	75.9	27.6	48.3	25.8	10.2	15.6	26	17
컴퓨터·전자·광학기기	2,136	82.8	29.7	53.1	26.5	7.7	18.8	14	9
전기장비제조업	1,360	66.3	19.9	46.5	17.4	5.4	12.0	14	9
기계및장비제조업	3,455	56.2	38.4	17.8	17.4	12.0	5.4	16	11
운송장비 제조업	690	75.0	13.4	61.6	16.0	3.1	13.0	12	8
기타 제조업	3,154	53.0	34.6	18.3	15.5	10.2	5.3	29	17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235	44.5	6.0	38.6	23.1	3.2	19.8	26	20
전력,가스 및 증기업	30	59.4	24.4	35.0	21.5	8.4	13.2	4	3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160	29.2	16.4	12.8	13.7	7.3	6.4	17	11

4) '24.8.13일부터 8.20일까지 카카오톡 설문조사로 실시 하였으며 '23년도 희망인천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인 4,300명에게 배포하여 약 22%인 940명이 응답하였음

5)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10억당 유발되는 효과임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전국	지역내	지역외	전국	지역내	지역외		
건설업	10,451	122.1	107.7	14.3	54.8	48.4	6.4	78	54
도매및소매업	59,260	795.3	644.0	151.3	418.3	335.4	82.8	711	375
운수업	17,594	304.2	223.7	80.5	121.0	87.3	33.7	231	123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65,398	719.7	676.3	43.3	227.1	213.3	13.8	722	334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2,068	106.6	25.6	81.0	57.2	13.1	44.1	53	40
금융및보험서비스업	0	104.9	29.3	75.6	64.6	18.0	46.5	36	30
부동산및임대업	6,039	170.7	131.8	38.9	130.9	101.6	29.3	33	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378	189.4	70.5	118.9	102.0	40.6	61.3	115	86
사업지원서비스업	3,872	133.4	74.2	59.2	88.6	50.2	38.4	145	110
공공행정및국방	0	4.4	3.0	1.3	3.3	2.3	1.0	4	3
교육서비스업	13,078	133.7	132.1	1.6	96.5	95.4	1.1	166	10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85	10.9	7.2	3.7	6.6	4.4	2.2	11	11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8,441	95.4	88.2	7.2	52.0	48.2	3.8	118	44
기타서비스	20,546	228.3	218.5	9.8	100.0	95.7	4.3	362	182
기타	0	5.9	3.5	2.4	0	0	0	0	0
전산업	**231,717**	**4,433.7**	**2,795.4**	**1,638.1**	**1,917.6**	**1,256.7**	**660.7**	**3,286**	**1,731**
지역내외유발비중		**100**	**63.0**	**37.0**	**100**	**65.5**	**34.5**	**100**	**100**

㈜ 신규보증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이며 본 표의 '23년 경영안정자금은 공급연도가 아닌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2023년 시행 상품 중 이후 연도에 공급된 실적을 포함함

나. 2024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2024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자료를 투입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표 4-3〉과 같이 2024년 33개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2024년도 당해연도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2,644억 원으로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0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업으로 전체 금액의 25.2%인 666.7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866.9억 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증금액 투입대비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33개 업종에 대해 각각의 유발효과를 지역 내와 지역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지역내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01.8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 외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이 219억 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하여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19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455.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와 지역 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

도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365.5억 원, 90.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영안정자금의 연계보증으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의 약 63.6%,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약 66.6%가 인천지역내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보증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천지역 내부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동시에 타지역과의 산업연계를 통해 외부지역에도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44억 원의 보증지원을 투입하였을 때 3,67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775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스업으로 6천만원을 투입하였을 때 4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보증금액의 투입 대비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낮은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인천지역의 경우 11,719백만 원의 보증지원을 투입하여 46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96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409명이고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이 344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4.9.13일자 "희망인천 특례보증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따르면 '24년도에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들 중 고용이 증가 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1%였으며 응답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약 1,631명인 것으로 조사[6]되었는데 수치 면에서 고용유발효과와 비교했을 경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3〉 2024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7]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전국	지역내	지역외	전국	지역내	지역외		
농림어업	420	104.2	9.7	94.5	51.7	4.0	47.7	212	13
광업	0	3.0	0.3	2.7	1.2	0.1	1.1	1	1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2,201	267.0	48.3	218.7	60.1	8.2	51.9	65	43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1,411	54.6	17.2	37.4	11.9	3.4	8.5	17	9
목재및종이,인쇄업	1,533	73.5	25.7	47.9	21.1	6.8	14.3	26	17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81.8	17.9	63.9	17.9	2.1	15.8	1	1
화학제품제조업	1,515	165.3	28.4	136.8	53.0	10.5	42.5	29	1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50	29.6	10.6	18.9	8.2	2.4	5.9	7	5
1차 금속제품제조업	357	56.1	6.8	49.3	11.0	1.3	9.7	5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92	90.3	35.5	54.9	30.9	13.1	17.8	31	20

6) '24.8.13일부터 8.20일까지 카카오톡 설문조사로 실시 하였으며 '24년도 희망인천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인 5,702명에게 배포하여 약 22%인 1,238명이 응답하였음

7)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10억당 유발되는 효과임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전국	지역내	지역외	전국	지역내	지역외		
컴퓨터·전자·광학기기	2,663	97.1	36.2	60.9	31.0	9.4	21.6	16	11
전기장비제조업	1,844	79.0	25.6	53.4	20.8	6.9	13.8	17	10
기계및장비제조업	2,887	52.5	33.0	19.5	16.2	10.3	5.9	15	10
운송장비 제조업	657	85.5	14.1	71.4	18.2	3.2	15.0	14	10
기타 제조업	3,501	59.0	38.5	20.5	17.3	11.4	5.9	33	19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105	47.8	5.1	42.7	24.7	2.7	21.9	28	21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66.9	27.6	39.3	24.3	9.5	14.8	5	4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177	32.5	18.2	14.3	15.3	8.1	7.2	18	12
건설업	13,357	154.2	137.4	16.8	69.3	61.8	7.5	99	68
도매및소매업	64,591	866.9	701.8	165.1	455.9	365.5	90.4	775	409
운수업	21,280	355.7	266.7	88.9	141.3	104.1	37.3	268	144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66,671	740.9	692.1	48.8	233.8	218.3	15.5	743	344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2,175	118.5	27.3	91.2	63.7	14.0	49.7	58	44
금융및보험서비스업	60	121.7	34.9	86.8	74.9	21.5	53.4	41	35
부동산및임대업	11,719	239	195.7	43.3	183.4	150.9	32.5	46	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917	223.2	89.5	133.7	120.5	51.6	68.9	136	101
사업지원서비스업	5,328	163.3	95.1	68.2	108.6	64.4	44.2	178	135
공공행정및국방	0	4.9	3.5	1.5	3.7	2.6	1.1	4	4
교육서비스업	16,852	171.8	170.0	1.8	124.0	122.8	1.2	213	13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10	12.0	7.9	4.1	7.3	4.9	2.4	13	1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9,445	107.3	98.9	8.3	58.5	54.1	4.4	133	49
기타서비스	24,392	269.9	258.9	11.0	118.2	113.4	4.8	428	215
기타	0	6.5	3.9	2.6	0	0	0	0	0
전산업	**264,410**	**5,001.5**	**3,182.3**	**1,819.1**	**2,197.9**	**1,463.3**	**734.6**	**3,675**	**1,963**
지역내외유발비중		**100**	**63.6**	**36.4**	**100**	**66.6**	**33.4**	**100**	**100**

㈜ 신규보증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이며 본 표의 '24년 경영안정자금은 공급연도가 아닌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2024년 시행 상품 중 이후 연도에 공급된 실적을 포함함

다. 2025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2025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자료를 투입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표 4-4〉와 같이 2025년 33개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2,888억 원으로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49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전체 금액의 25.7%인 742.8억 원이 지원되었다. 반면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케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960.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증 금액 투입대비 생산유발효

과가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추정되었다. 33개 업종에 대해 각각의 유발효과를 지역 내와 지역 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지역내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77.4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 외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이 243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386.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505.3억 원으로 가장 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유발효과를 지역 내와 지역 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404.9억 원, 100.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영안정자금의 연계보증으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의 약 63.3%,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약 66%가 인천지역내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보증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천지역 내부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동시에 타지역과의 산업연계를 통해 외부지역에도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4,013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 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859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3천만원을 투입하였을 때 44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보증금액의 투입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업종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인천지역의 경우 4,022백만 원의 보증지원을 투입하여 2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14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453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이 38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6.4.8일자 "2025 사업연도 인천시 특례보증 지원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25년도에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들 중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8%였으며 응답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약 1,882명이상인 것으로 조사[8]되었는데 고용유발효과 비교했을 때 이 수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8) '26.3.11일부터 3.13일까지 카카오톡 설문조사로 실시 하였으며 '25년도 희망인천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인 10,578명에게 배포하여 약 26.2%인 2,771명이 응답하였음
9)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10억당 유발되는 효과임

〈표 4-4〉 2025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9)]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전국	지역내	지역외	전국	지역내	지역외		
농림어업	850	120.0	14.7	105.4	59.3	6.1	53.2	243	15
광업	0	3.2	0.3	2.9	1.3	0.1	1.2	1	1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2,769	300.2	57.2	243.0	67.3	9.7	57.6	73	48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2,275	68.9	26.3	42.5	14.9	5.2	9.7	22	12
목재및종이,인쇄업	1,165	75.7	23.2	52.5	21.8	6.1	15.7	26	18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91.5	20.1	71.4	20.1	2.4	17.7	1	1
화학제품제조업	1,956	186.0	34.3	151.6	59.8	12.7	47.0	32	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98	31.5	9.4	22.1	9.0	2.1	6.8	8	6
1차 금속제품제조업	721	68.2	11.1	57.1	13.4	2.1	11.3	7	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283	97.0	34.9	62.1	33.0	12.9	20.1	33	21
컴퓨터·전자·광학기기	3,187	108.7	42.3	66.4	34.5	11.0	23.5	18	12
전기장비제조업	1,944	86.5	27.3	59.1	22.7	7.4	15.3	18	12
기계및장비제조업	4,022	68.1	45.3	22.9	21.1	14.2	6.9	20	14
운송장비 제조업	885	90.7	16.5	74.2	19.4	3.8	15.6	15	10
기타 제조업	4,147	67.7	45.3	22.4	19.9	13.4	6.5	37	22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300	55.7	7.6	48.1	28.8	4.1	24.7	32	25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74.0	30.3	43.7	26.9	10.4	16.5	5	4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160	35.2	19.3	15.9	16.5	8.6	8.0	20	13
건설업	17,783	199.2	181.7	17.5	89.5	81.7	7.8	127	88
도매및소매업	71,527	960.8	777.4	183.3	505.3	404.9	100.3	859	453
운수업	24,156	400.4	301.5	98.9	159.1	117.7	41.4	301	162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74,278	823.4	770.2	53.3	259.8	242.9	16.9	826	383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2,824	135.2	34.4	100.8	72.5	17.6	54.9	68	51
금융및보험서비스업	30	129.3	36.3	93.0	79.6	22.3	57.3	44	37
부동산및임대업	7,843	211.1	163.7	47.3	161.8	126.2	35.6	40	3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857	251.6	102.7	148.9	136.0	59.2	76.8	153	114
사업지원서비스업	5,181	171.7	97.0	74.8	114.1	65.6	48.5	187	142
공공행정및국방	30	5.8	4.2	1.6	4.3	3.1	1.2	5	4
교육서비스업	17,291	176.5	174.5	2.0	127.4	126.0	1.4	219	14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83	13.7	9.2	4.5	8.3	5.6	2.7	14	13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10,619	120.3	111.1	9.2	65.6	60.7	4.9	149	55
기타서비스	23,054	259.0	246.8	12.1	113.4	108.1	5.3	410	206
기타	0	7.2	4.3	2.9	0	0	0	0	0
전산업	**288,818**	**5,494**	**3,480.4**	**2,013.4**	**2,386.4**	**1,573.9**	**812.3**	**4,013**	**2,142**
지역내외유발비중		**100**	**63.3**	**36.7**	**100**	**66.0**	**34.0**	**100**	**100**

㈜ 신규보증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이며 본 표의 '25년 경영안정자금은 공급연도가 아닌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2025년 시행 상품 중 이후 연도에 공급된 실적을 포함함

라.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연도별 경제적 파급효과와 단위 보증공급액당 효과

〈표 4-5〉 2023년~2025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연도별 경제적파급효과

(단위 : 억 원, 명)

구분	보증공급액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2023	2,317	4,434	1,918	3,286	1,731
2024	2,644	5,002	2,198	3,675	1,963
2025	2,888	5,494	2,386	4,013	2,142
계	7,849	14,930	6,502	10,974	5,836

〈표 4-6〉 2023년~2025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단위보증공급액당 효과

구분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비고
2023	1.91	0.83	14.2	7.5	
2024	1.89	0.83	13.9	7.4	
2025	1.90	0.83	13.9	7.4	

〈표 4-5〉와 〈표 4-6〉에서와 같이 보증공급 규모가 확대되면서 총 파급효과가 증가 했지만 단위 보증 공급액당 파급효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금액이 증가한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인천시 2025년도 보증공급액의 군구별 경제유발효과 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25년도에 총 6,957억 원의 신규 보증액을 인천시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였는데 지원 금액을 군구별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천 강화군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7〉은 강화군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8〉과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강화군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154.7억 원으로 강화군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30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강화군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45.6%인 70.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역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7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26.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달리 도매 및 소매업이 24.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2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7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 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5백만 원을 투입하였을 때 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1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35명의 유발 효과를 발생 시켰다.

강화군 지역의 산업 특성은 다른 군구와 비교해 농업·농수산물을 기반으로 관광·외식·소매업이 결합된 농어촌 관광형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증공급액은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잔액 20,224억 원 중 429억 원, 점유비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개 군구중 옹진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이다.

〈표 4-7〉 인천시 강화군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강화군	10,313(2.9)	9,862(3.0)	429(2.1)	154.7(2.2)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 보증잔액은 〈표 2-23〉의 잔액기준임

〈표 4-8〉 인천시 강화군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10)]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농림어업	3.07	12.9	6.2	25	2
광 업	0	0.2	0.1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3.47	27.0	6.0	7	4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0.68	3.2	0.7	1	1
목재및종이,인쇄업	0.20	4.0	1.2	1	1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5.8	1.3	0	0
화학제품제조업	0	9.0	2.9	2	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30	1.7	0.5	0	0
1차 금속제품제조업	0.19	2.7	0.5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73	4.3	1.4	1	1
컴퓨터·전자·광학기기	0	3.1	1.1	0	0
전기장비제조업	0	3.2	0.8	1	0
기계및장비제조업	0.39	1.6	0.5	0	0
운송장비 제조업	0.30	3.7	0.8	1	0
기타 제조업	1.74	3.3	1.0	2	1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0	2.7	1.4	2	1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4.0	1.5	0	0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	2.1	1.0	1	1
건설업	7.15	8.5	3.8	5	4
도매및소매업	30.96	46.4	24.5	41	22
운수업	18.12	27.2	10.8	20	11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70.51	74.3	23.4	75	35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1.24	6.6	3.5	3	2
금융및보험서비스업	0.05	7.1	4.4	2	2
부동산및임대업	2.98	10.9	8.4	2	2

10) 취업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10억당 유발되는 효과이며 다른 군구도 동일함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39	11.0	5.9	7	5
사업지원서비스업	0.70	6.7	4.5	7	6
공공행정및국방	0	0.4	0.3	0	0
교육서비스업	2.12	2.3	1.7	3	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0.29	0.8	0.5	1	1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3.01	3.7	2.0	4	2
기타서비스	5.10	6.6	2.9	10	5
기타	0	0.5	1	0	0
전산업	**154.69**	**307.5**	**126.5**	**224**	**112**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2. 인천 옹진군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9〉는 옹진군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10〉과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옹진군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56.3억 원으로 옹진군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114.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옹진군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51.4%인 29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30.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4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이 9.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8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3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 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전문 및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34백만 원을 투입하였을 때 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3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14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 시켰다.

옹진군지역의 산업 특성은 도서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수산업과 관광서비스업이 중심이고, 영흥면의 발전산업이 지역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 잔액 20,224억 원 중 147억 원, 점유비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가장 낮은 지역이다.

〈표 4-9〉 인천시 옹진군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옹진군	2,798(0.8)	2,690(0.8)	147(0.7)	56.3(0.8)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10〉 인천시 옹진군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농림어업	6.03	10.3	4.6	19	1
광 업	0	0.1	0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1.0	11.0	2.5	3	2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0	0.9	0.2	0	0
목재및종이,인쇄업	0	1.5	0.4	1	0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1.9	0.4	0	0
화학제품제조업	0	3.6	1.1	1	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3	1.0	0.3	0	0
1차 금속제품제조업	0	1.0	0.2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	1.3	0.4	0	0
컴퓨터·전자·광학기기	0	1.1	0.4	0	0
전기장비제조업	0	1.2	0.3	0	0
기계및장비제조업	0.17	0.7	0.2	0	0
운송장비 제조업	0	1.0	0.2	0	0
기타 제조업	0	0.6	0.2	0	0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0	1.0	0.5	1	0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1.5	0.5	0	0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	0.8	0.4	0	0
건설업	4.24	4.7	2.1	3	2
도매및소매업	7.93	14.0	7.4	12	7
운수업	2.08	5.3	2.1	4	2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28.96	30.3	9.5	30	14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0	1.7	0.9	1	1
금융및보험서비스업	0	2.5	1.5	1	1
부동산및임대업	0.40	3.2	2.5	1	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34	3.9	2.1	2	2
사업지원서비스업	1.75	3.7	2.5	4	3
공공행정및국방	0	0.1	0.1	0	0
교육서비스업	0.60	0.7	0.5	1	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0	0.2	0.1	0	0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0.60	0.8	0.4	1	0
기타서비스	1.93	2.4	1.1	4	2
기타	0	0.2	0	0	0
전산업	**56.33**	**114.2**	**45.6**	**89**	**38**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3. 인천 중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11〉은 중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12〉와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중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577.2억 원으로 중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1,096.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중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30.4%인 175.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190.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47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다르게 도매 및 소매업이 9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80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191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22백만 원을 투입하였을 때 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42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8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 시켰다.

중구 지역의 산업 특성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항공·항만 운수 및 물류산업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으며, 영종·용유지역과 개항장·월미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숙박·음식점업과 관광·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잔액 20,224억 원 중 1,528억 원, 점유비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비교적 작은 지역이다.

〈표 4-11〉 인천시 중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중구	27,145(7.6)	24,591(7.5)	1,528(7.6)	577.2(8.3)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12〉 인천시 중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3.29	28.8	14.1	58	4
광 업	0	0.5	0.2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7.44	69.1	15.4	17	11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0.39	8.7	2.0	3	1
목재및종이,인쇄업	3.21	15.9	4.6	6	4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26.0	5.6	0	0
화학제품제조업	1.45	31.6	10.1	5	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	4.5	1.3	1	1
1차 금속제품제조업	0	8.4	1.6	1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09	12.0	4.0	4	3
컴퓨터·전자·광학기기	0.20	12.5	4.2	2	1
전기장비제조업	0.30	12.1	3.2	2	2
기계및장비제조업	0.49	4.7	1.4	1	1
운송장비 제조업	0.84	17.9	3.8	3	2
기타 제조업	1.68	6.8	2.0	4	2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0.38	9.1	4.7	5	4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14.5	5.2	1	1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	6.6	3.1	4	2
건설업	24.54	28.9	13.0	18	13
도매및소매업	137.90	186.2	98.0	167	88
운수업	109.09	143.0	56.4	102	58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175.53	190.7	60.2	191	8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3.76	24.4	13.1	12	9
금융및보험서비스업	0.22	25.9	16.0	9	7
부동산및임대업	12.79	39.8	30.5	8	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23	43.1	23.1	26	20
사업지원서비스업	6.75	31.4	20.8	34	26
공공행정및국방	0.30	1.7	1.3	1	1
교육서비스업	32.72	33.4	24.1	41	2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0.49	2.4	1.5	3	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12.69	15.8	8.6	19	7
기타서비스	32.46	38.6	16.9	61	31
기타	0	1.5	0	0	0
전산업	**577.23**	**1,096.5**	**470**	**809**	**428**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4. 인천 동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13〉은 동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14〉와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동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243.6억 원으로 동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45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동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28.0%인 68.3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86.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97.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94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77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2천만원을 투입하였을 때 1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41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동구의 산업 특성은 철강·금속가공·기계 등 전통 제조업이 직접된 인천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대규모 제조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만석·화수부두를 기반으로 선박수리·물류 등 항만 연관 산업도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노후 공업지역 재생과 뿌리산업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잔액 20,224억 원 중 683억 원, 점유비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비교적 작은 지역이다.

〈표 4-13〉 인천시 동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동구	11,536(3.2)	10,881(3.3)	683(3.4)	243.6(3.5)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14〉 인천시 동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0.20	4.7	2.3	10	1
광 업	0	0.5	0.2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1.30	12.2	2.7	3	2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0	3.2	0.7	1	1
목재및종이,인쇄업	0.93	6.1	1.7	2	1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9.6	2.1	0	0
화학제품제조업	0.50	14.9	4.7	3	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79	5.6	1.6	1	1
1차 금속제품제조업	0.73	10.1	2.0	1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05	14.7	5.1	5	3
컴퓨터·전자·광학기기	4.21	11.2	3.5	2	1
전기장비제조업	4.17	11.4	3.0	3	2
기계및장비제조업	10.72	15.0	4.7	4	3
운송장비 제조업	1.20	8.1	1.7	1	1
기타 제조업	4.38	6.1	1.8	3	2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2.00	7.3	3.8	4	3
전력,가스 및 증기업	0.90	7.4	2.7	1	0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	2.3	1.1	1	1
건설업	44.72	46.1	20.7	30	20
도매및소매업	68.31	86.3	45.3	77	41
운수업	33.77	48.3	19.1	35	20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24.81	31.3	9.9	31	15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1.80	10.1	5.4	5	4
금융및보험서비스업	0.26	10.7	6.6	4	3
부동산및임대업	4.20	13.4	10.3	3	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53	20.7	11.1	12	9
사업지원서비스업	6.93	17.8	11.9	20	15
공공행정및국방	0	0.5	0.4	0	0
교육서비스업	2.43	2.7	2.0	3	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25	2.0	1.2	2	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2.18	3.3	1.8	4	2
기타서비스	12.30	14.8	6.5	23	12
기타	0	0.6	0	0	0
전산업	**243.57**	**459.0**	**197.6**	**294**	**172**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5. 인천 미추홀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15〉는 미추홀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16〉과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미추홀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916.6억 원으로 미추홀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1,75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미추홀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27.4%인 251.1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307.2억 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759.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이 16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9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278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2.7억 원을 투입하였을 때 7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68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4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미추홀구 지역의 산업 특성은 도소매·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업종이 발달한 원도심 지역으로, 도화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계·금속 등 전통 제조업 기반도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원도심 재개발·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면서 건설업 및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1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 잔액 20,224억 원 중 2,733억 원, 점유비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비교적 큰 지역이다.

〈표 4-15〉 인천시 미추홀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미추홀구	44,742(12.6)	41,752(12.8)	2,733(13.5)	916.6(13.2)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16〉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2.66	39.1	19.3	79	5
광 업	0	1.1	0.5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5.08	94.7	21.5	23	15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1.40	15.0	3.3	5	3
목재및종이,인쇄업	3.16	23.8	6.9	8	6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30.7	6.7	0	0
화학제품제조업	2.26	54.9	17.5	9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30	11.3	3.2	3	2
1차 금속제품제조업	0.40	19.6	3.9	2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4	26.1	8.7	9	6
컴퓨터·전자·광학기기	9.09	32.9	10.5	6	4
전기장비제조업	4.60	26.8	7.0	6	4
기계및장비제조업	4.33	12.7	3.9	4	3
운송장비 제조업	0.95	26.6	5.7	4	3
기타 제조업	11.85	20.3	6.0	11	7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2.45	18.2	9.5	11	8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22.8	8.3	2	1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	10.4	4.9	6	4
건설업	83.35	90.1	40.5	58	40
도매및소매업	228.62	307.2	161.5	275	145
운수업	88.27	139.3	55.3	104	56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251.14	276.7	87.3	278	129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5.96	39.5	21.3	19	15
금융및보험서비스업	1.85	43.1	26.6	15	12
부동산및임대업	19.51	62.2	47.6	12	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4.15	83.6	45.3	51	38
사업지원서비스업	23.97	62.9	41.9	69	52
공공행정및국방	0	1.8	1.4	1	1
교육서비스업	34.30	35.4	25.6	44	2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54	6.7	4.1	7	6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29.22	33.6	18.3	41	15
기타서비스	71.79	80.9	35.4	128	64
기타	0	2.3	0	0	0
전산업	**916.64**	**1,752.3**	**759.4**	**1,290**	**689**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6. 인천 연수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17〉은 연수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18〉과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연수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915.2억 원으로 연수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1,713.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연수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27.9%인 255.6억이 지원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33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775.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이 174.4억 원의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30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297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제조 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으로 76백만 원을 투입하였을 때 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69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57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 시켰다.

연수구 지역의 산업 특성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IT 등 첨단산업과 국제업무·MICE·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인천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거점이다. 한편 기존 도심과 대규모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도소매·음식점·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발달해 있으며, 인천 신항과 연계한 물류 기능까지 갖춘 복합적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 공급의 1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 잔액 20,224억 원 중 2,466억 원, 점유비 1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비교작 큰 지역이다.

〈표 4-17〉 인천시 연수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연수구	41,551(11.7)	37,427(11.5)	2,466(12.2)	915.2(13.2)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18〉 인천시 연수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0	36.7	18.4	75	5
광 업	0	0.7	0.3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7.59	98.1	22.1	24	16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2.88	16.0	3.5	5	3
목재및종이,인쇄업	2.99	23.3	6.8	8	5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24.8	5.5	0	0
화학제품제조업	4.61	53.2	17.1	9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	6.9	2.0	2	1
1차 금속제품제조업	0	13.4	2.6	1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21	20.8	7.0	7	5
컴퓨터·전자·광학기기	1.15	23.1	7.8	3	3
전기장비제조업	1.60	20.5	5.3	4	3
기계및장비제조업	2.21	8.6	2.6	2	2
운송장비 제조업	1.49	23.6	5.0	4	3
기타 제조업	8.06	16.9	4.9	9	5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0.76	14.7	7.6	8	7
전력,가스 및 증기업	0.40	22.7	8.2	2	1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	10.5	4.9	6	4
건설업	35.87	43.0	19.3	27	19
도매및소매업	255.58	332.0	174.4	297	157
운수업	45.03	93.2	37.3	73	38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245.13	272.0	85.8	273	126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14.89	52.0	27.7	27	19
금융및보험서비스업	1.51	42.9	26.4	15	12
부동산및임대업	32.19	77.3	59.3	15	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5.14	92.2	50.3	57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66	56.3	37.4	61	46
공공행정및국방	0	1.6	1.2	1	1
교육서비스업	89.42	90.6	65.4	112	7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6	5.5	3.3	6	5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39.12	43.7	23.8	54	20
기타서비스	65.43	74.4	32.6	118	59
기타	0	2.3	0	0	0
전산업	**915.18**	**1,713.5**	**775.8**	**1,305**	**698**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7. 인천 남동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19〉는 남동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20〉과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남동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1,238.4억 원으로 남동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2,363.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남동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28.4%인 352.2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458.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022.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이 240.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706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41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4억 원을 투입하였을 때 9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91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216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남동구 지역의 산업 특성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계·금속·전기전자 등 중소제조업이 밀집한 인천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구월동 등 도심지역의 도·소매 및 생활서비스업과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산업이 함께 발달한 복합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영세 제조업체 비중과 노후 산업시설 비중이 높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첨단·스마트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주요 과제로 나타난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보증공급의 1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잔액 20,224억 원 중 3,475억 원, 점유비 1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두번째로 큰 지역이다.

〈표 4-19〉 인천시 남동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명)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남동구	61,943(17.4)	55,738(17.1)	3,475(17.2)	1,238.4(17.8)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20〉 인천시 남동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3.96	48.7	24.0	99	6
광 업	0	1.6	0.7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8.27	118.2	26.7	29	19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10.85	30.8	6.7	10	5
목재및종이,인쇄업	6.94	34.9	10.0	12	8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36.9	8.1	0	0
화학제품제조업	12.72	86.8	28.1	15	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18	16.0	4.4	4	3
1차 금속제품제조업	3.58	32.0	6.3	3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43	45.0	15.3	15	10
컴퓨터·전자·광학기기	23.83	59.4	18.4	11	7
전기장비제조업	10.20	39.5	10.4	8	5
기계및장비제조업	27.30	40.9	12.7	12	8
운송장비 제조업	6.04	40.4	8.7	7	5
기타 제조업	17.76	28.6	8.4	16	9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2.38	26.7	13.8	15	12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32.3	11.7	2	2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3.14	17.4	8.1	10	6
건설업	78.54	87.2	39.2	56	39
도매및소매업	352.16	458.4	240.9	410	216
운수업	76.53	146.9	58.6	113	60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295.26	331.1	104.5	332	154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8.97	55.1	29.6	27	21
금융및보험서비스업	3.04	58.6	36.0	20	17
부동산및임대업	19.33	77.0	58.9	15	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5.80	106.2	57.3	64	48
사업지원서비스업	20.44	71.4	47.4	78	59
공공행정및국방	0	2.2	1.7	2	2
교육서비스업	61.32	62.9	45.4	78	5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09	10.4	6.3	11	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44.36	50.1	27.3	62	23
기타서비스	94.94	107.1	46.9	170	85
기타	0	3.1	0	0	0
전산업	**1,238.36**	**2,363.8**	**1,022.5**	**1,706**	**913**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8. 인천 부평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21〉은 부평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22〉와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부평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913.6억 원으로 부평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1,746.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부평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29.1%인 265.6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34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758.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이 18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7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309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18백만 원을 투입하였을 때 7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68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6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 시켰다.

부평구 지역의 산업 특성은 한국 GM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전기전자 등 제조업 기반이 발달한 가운데, 부평역과 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권을 기반으로 도소매·음식·생활서비스업이 함께 발달한 가운데, 부평역과 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권을 기반으로 도소매·음식·생활서비스업이 함께 발달한 제조·상업 복합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노후 산업단지와 영세 중소 제조업체 비중이 높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첨단산업 전환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1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 잔액 20,224억 원 중 2,845억 원, 점유비 1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비교적 큰 지역이다.

〈표 4-21〉 인천시 부평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명)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부평구	52,508(14.8)	48,719(15.0)	2,845(14.1)	913.6(13.1)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22〉 인천시 부평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0.18	35.0	17.5	72	4
광업	0	0.9	0.4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6.83	92.4	20.8	22	15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10.0	25.2	5.4	8	4
목재및종이,인쇄업	4.84	25.8	7.4	9	6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26.0	5.7	0	0
화학제품제조업	4.17	58.2	18.6	10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29	9.2	2.7	2	2
1차 금속제품제조업	0.30	19.7	3.9	2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8.74	32.4	11.1	11	7
컴퓨터·전자·광학기기	10.55	36.2	11.5	6	4
전기장비제조업	13.62	35.9	9.5	8	5
기계및장비제조업	10.66	19.2	5.9	6	4
운송장비 제조업	2.03	26.6	5.7	4	3
기타 제조업	12.77	21.0	6.2	12	7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1.59	18.6	9.6	11	8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23.1	8.4	2	1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90	11.3	5.3	6	4
건설업	56.66	63.3	28.4	40	28
도매및소매업	265.60	345.4	181.5	309	163
운수업	49.15	100.5	40.2	78	41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233.79	260.6	82.2	261	121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13.04	48.5	25.9	25	18
금융및보험서비스업	1.63	42.9	26.4	15	12
부동산및임대업	15.94	59.8	45.8	11	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1.89	81.4	44.0	50	37
사업지원서비스업	14.47	52.2	34.7	57	43
공공행정및국방	0	1.6	1.2	1	1
교육서비스업	41.78	43.0	31.0	53	3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78	8.0	4.9	9	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32.22	36.4	19.8	45	17
기타서비스	75.16	84.2	36.8	133	67
기타	0	2.3	0	0	0
전산업	**913.58**	**1,746.8**	**758.4**	**1,278**	**682**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9. 인천 계양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23〉은 계양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24〉와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계양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471.9억 원으로 계양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896.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계양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26.2%인 123.4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63.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390.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이 85.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65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4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3천만원을 투입하였을 때 3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35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7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 시켰다.

계양구 지역의 산업 특성은 주거지역을 배후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활서비스업과 운수·물류업이 발달하고 서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최근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자족형 산업도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 잔액 20,224억 원 중 1,586억 원, 점유비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비교적 작은 지역이다.

〈표 4-23〉 인천시 계양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명)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계양구	30,231(8.5)	28,161(8.6)	1,586(7.8)	471.9(6.8)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24〉 인천시 계양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0.30	18.3	9.1	37	2
광 업	0	0.5	0.2	0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2.19	46.8	10.6	11	7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3.99	11.5	2.5	4	2
목재및종이,인쇄업	1.10	11.4	3.3	4	3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15.8	3.5	0	0
화학제품제조업	1.93	28.8	9.2	5	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30	5.0	1.4	1	1
1차 금속제품제조업	0	9.1	1.8	1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4	14.4	4.9	5	3
컴퓨터·전자·광학기기	6.13	18.7	5.9	3	2
전기장비제조업	3.35	14.3	3.7	3	2
기계및장비제조업	3.14	7.3	2.2	2	1
운송장비 제조업	0	12.7	2.7	2	1
기타 제조업	4.26	8.5	2.5	5	3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0.77	8.9	4.6	5	4
전력,가스 및 증기업	0	11.9	4.3	1	1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1.99	7.4	3.4	4	3
건설업	31.47	34.9	15.7	22	15
도매및소매업	123.42	163.3	85.8	146	77
운수업	45.55	72.0	28.6	54	29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122.94	136.3	43.0	137	63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2.33	19.9	10.7	9	7
금융및보험서비스업	0.77	21.9	13.5	7	6
부동산및임대업	9.52	31.6	24.2	6	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11	45.2	24.5	28	21
사업지원서비스업	9.11	29.1	19.4	32	24
공공행정및국방	0	0.9	0.7	1	1
교육서비스업	22.87	23.5	16.9	29	1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64	5.3	3.2	6	5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18.39	20.7	11.3	26	10
기타서비스	34.41	39.2	17.2	62	31
기타	0	1.2	0	0	0
전산업	**471.92**	**896.3**	**390.5**	**658**	**352**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10. 인천 서구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표 4-25〉는 서구의 보증지원 현황이며,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표 4-26〉과 같이 산출하였다. 2025년도 당해연도 인천 서구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총 1,469.3억 원으로 서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전국적으로 약 2,785.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보증지원을 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서구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26.4%인 388.4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51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214.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이 269.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458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중 보증 금액의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97백만을 투입하였을 때 10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09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24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 시켰다.

서구 지역의 산업 특성은 가좌·석남·원창 및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금속·자동차부품 등 제조업과 항만·물류산업이 발달한 인천의 대표적인 산업 집적 지역이며,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자동차·로봇·금융·유통·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검단 지역에서는 환경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다. 따라서 2025년 전체 신규 보증공급의 2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잔액 20,224억 원 중 4,332억 원, 점유비 2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군구중 가장 큰 지역이다. 향후 가장 많은 보증공급 수요가 예상되며, 경제 파급효과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5〉 인천시 서구의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명)

지역	보증대상 기업체수		2025년말 보증잔액(억 원)	2025년 신규보증(억 원)
	전체	소상공인		
서구	72,941(20.5)	66,006(20.3)	4,332(21.4)	1,469.3(21.1)
인천전체	355,708(100)	325,827(100)	20,224(100)	6,956.6(100)

〈표 4-26〉 인천시 서구 소재 지원기업의 업종별 경제유발효과

(단위 : 억 원, 명)

부문명칭	신규보증금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어업	0.97	53.4	26.6	109	7
광 업	0	1.7	0.7	1	0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14.90	142.1	31.8	34	23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10.10	33.3	7.2	11	6
목재및종이,인쇄업	9.99	43.5	12.5	15	10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0	43.9	9.6	0	0
화학제품제조업	18.58	106.2	34.5	19	1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22	16.7	4.7	4	3
1차 금속제품제조업	10.71	46.5	9.1	5	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65	66.1	22.9	23	14
컴퓨터·전자·광학기기	13.32	51.8	16.6	9	6
전기장비제조업	7.91	41.2	10.8	9	6
기계및장비제조업	29.47	44.9	13.9	13	9
운송장비 제조업	6.43	45.5	9.7	7	5
기타 제조업	30.22	43.2	12.7	24	14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업	1.38	30.0	15.5	17	13
전력,가스 및 증기업	0.17	38.8	14.1	3	2
수도폐기물 재활용서비스업	0.76	18.0	8.5	10	7
건설업	85.10	95.4	42.9	61	42
도매및소매업	388.39	512.0	269.1	458	242
운수업	99.62	181.2	72.2	138	74
음식점및숙박서비스업	341.87	383.2	120.9	385	178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업	21.52	76.8	41.0	40	29
금융및보험서비스업	1.71	66.1	40.7	22	19
부동산및임대업	26.28	93.0	71.3	18	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4.92	129.3	69.9	79	59
사업지원서비스업	42.01	102.5	68.3	113	85
공공행정및국방	0	2.7	2.0	2	2
교육서비스업	97.92	99.8	72.0	124	8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8.57	13.6	8.3	14	13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35.80	42.6	23.2	52	20
기타서비스	102.82	117.1	51.3	186	93
기타	0	3.6	0	0	0
전산업	**1,469.31**	**2,785.7**	**1,214.5**	**2,005**	**1,090**

㈜ 신규보증금액은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11. 인천시 군구별 보증공급액의 경제유발효과

〈표 4-27〉은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공급액에 대한 군구별 경제유발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산출하였다. 신규 보증공급액 6,957억 원중 서구에 1,469억 원을 공급하여 가장 많이 공급하였으며 남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공급하였다. 서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공급합계액이 전체 공급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서구가 2,786억 원, 남동구가 2,364억 원, 미추홀구가 1,752억 원의 효과가 발생했으며, 3개구가 전체 생산유발효과액 13,237억 원[11]의 52.1%인 6,9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면 전체 5,759억 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서구가 1,215억 원, 남동구가 1,023억 원, 연수구가 776억 원으로 3개구의 합계가 52.3%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유발 효과를 보면 9,66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했는데 서구가 2,005명, 남동구가 1,706명, 연수구가 1,305명으로 3개구 합계가 51.9%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유발 효과를 보면 5,17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했는데 취업유발 효과와 마찬가지로 서구가 1,090명, 남동구가 913명, 연수구가 698명이 발생하여 3개구의 합이 52.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액을 많이 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유발효과가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4-27〉 '25년 인천시 군구별 보증공급액의 경제유발효과

(단위: 억 원, 명)

군구	신규보증공급액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명	점유비	명	점유비
강화군	154.69	2.2	307.5	2.3	126.5	2.2	224	2.3	112	2.2
옹진군	56.33	0.8	114.2	0.9	45.6	0.8	89	0.9	38	0.7
중구	577.23	8.3	1,096.5	8.3	470.0	8.2	809	8.4	428	8.3
동구	243.57	3.5	459.0	3.5	197.6	3.4	294	3.0	172	3.3
미추홀구	916.64	13.2	1,752.3	13.2	759.4	13.2	1,290	13.4	689	13.3
연수구	915.18	13.2	1,713.5	12.9	775.8	13.5	1,305	13.5	698	13.5
남동구	1,238.36	17.8	2,363.8	17.9	1,022.5	17.7	1,706	17.7	913	17.6
부평구	913.58	13.1	1,746.8	13.2	758.4	13.2	1,278	13.2	682	13.2
계양구	471.92	6.8	896.3	6.8	390.5	6.8	658	6.8	352	6.8
서구	1,469.31	21.1	2,785.7	21.0	1,214.5	21.1	2,005	20.8	1,090	21.1
인천시전체	6,956.6	100	13,236.7	100	5,759.2	100	9,663	100	5,174	100

㈜ 인천시 전체 효과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5년 보증이용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분석」의 금액과 인원수이며 군구별 합계와 인천시 전체합계가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1)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5년 보증 이용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 분석」과 금액의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군구별로 나누어서 지역별 경제효과를 분석하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발생한 것임

제 3 절 인천과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표 4-28〉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이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분석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효과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타 광역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의 3개년(2019년, 2022년, 2025년) 경제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2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단위 : 억 원, 명)

재단	2019년			2022년			2025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강원	5,663	2,510	8,130	9,005	4,125	9,830	8,528	3,816	8,161
경기	36,167	14,254	35,612	58,232	25,661	53,301	44,427	19,328	29,834
경남	10,038	4,281	13,250	16,285	7,402	17,892	17,310	7,630	15,547
경북	8,872	3,857	12,356	12,563	5,622	14,813	21,608	9,470	19,076
광주	4,981	2,074	2,671	5,655	2,608	6,615	8,922	3,954	7,665
대구	7,535	3,131	9,308	11,048	5,047	13,180	20,014	8,752	17,489
대전	5,347	2,256	6,681	9,550	4,497	10,588	11,579	5,223	9,785
부산	8,524	3,589	9,899	16,138	7,412	17,453	21,853	9,592	18,510
서울	33,750	13,541	30,478	50,271	22,374	45,133	45,353	19,892	29,711
울산	3,319	1,392	3,884	4,914	2,194	5,171	6,179	2,751	5,352
인천	**8,152**	**3,318**	**9,270**	**11,069**	**5,026**	**11,221**	**13,237**	**5,759**	**9,663**
전남	6,406	2,779	9,801	7,018	3,121	8,155	10,518	4,659	9,435
전북	4,851	2,078	7,142	8,565	3,774	9,693	15,495	6,797	13,531
제주	2,806	1,233	3,736	4,114	1,903	4,464	4,464	1,963	3,794
충남	9,372	3,947	11,363	13,507	5,876	13,995	19,418	8,390	16,344
충북	4,576	1,927	6,141	7,306	3,223	8,370	12,091	5,341	9,886
세종	-	-	-	2,313	1,099	2,520	2,430	1,140	2,042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9~2025년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효과분석보고서

이와 더불어 〈표 4-29〉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증감률 추이 비교는 〈표 4-28〉지역신용보증재단의 3개년 경제유발효과 추이 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경제유발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신용보증재단 위주로 원인을 분석하였다.

〈표 4-2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증감률 추이 비교

(단위 : %)

재단	보증증감률		생산유발효과 증감률		부가가치유발효과증감률		취업유발효과 증감률	
	2019→2022	2022→2025	2019→2022	2022→2025	2019→2022	2022→2025	2019→2022	2022→2025
강원	55	-9	59	-5	64	-7	21	-17
경기	65	-25	61	-24	80	-25	50	-44
경남	62	2	62	6	73	3	35	-13
경북	36	66	42	72	46	68	20	29
광주	16	51	14	58	26	52	148	16
대구	49	73	47	81	61	73	42	33
대전	84	16	79	21	99	16	58	-8
부산	91	28	89	35	107	29	76	6
서울	51	-10	49	-10	65	-11	48	-34
울산	48	20	48	26	58	25	33	4
인천	**38**	**15**	**36**	**20**	**51**	**15**	**21**	**-14**
전남	7	43	10	50	12	49	-17	16
전북	74	74	77	81	82	80	36	40
제주	43	2	47	9	54	3	19	-15
충남	40	40	44	44	49	43	23	17
충북	56	63	60	65	67	66	36	18
세종	-	2	-	5	-	4	-	-19

먼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증감률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38%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각각 36%, 51%로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유발효과가 21% 증가하였다. 2022년대비 2025년 보증공급량은 15%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각각 20%, 15% 증가하였으나 취업유발 효과는 오히려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보증공급이 51%가 증가하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49%, 65% 증가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는 48%가 증가하였다. 2022년 대비 2025년 보증공급은 10%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는 10%가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가 감소하였으며, 취업유발 효과는 34%가 감소하였다.

셋째,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증감률은 2019년대비 2022년에 7%가 증가하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10%, 12%가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유발효과는 17%가 감소하였다. 2022년 대비 2025년 보증공급량은 43%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는 50%가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취업유발 효과는 16%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마지막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증감률은 2019년대비 2022년에 40%가 증가하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도 각각 44%와 49%로 크게 증가하였고 취업유발효과도 23%가 증가하였다. 2022년대비 2025년 보증공급량은 40%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44%, 43%가 증가하였으나 취업유발 효과는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9년에 비해 2025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총 보증공급은 72.3%가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총 생산유발효과가 76.7%, 부가가치유발효과 88.1%, 취업유발 효과는 25.7%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증공급량을 달리하였을 때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비슷하게 증감하는데, 취업유발효과는 그보다 작은 폭으로 증감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증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경제유발효과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나 각각의 유발효과가 보증공급량과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보증공급량 자체보다는 지역산업구조와 업종에 따라 보증투입량을 다르게 하면 각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약 6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투입 금액 대비 경제유발계수 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4-30〉과 같다.

〈표 4-30〉 주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계수값 비교

재단	2019년말			2022년말			2025년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인천	**1.87**	**0.76**	**21.2**	**1.83**	**0.83**	**18.6**	**1.90**	**0.83**	**13.9**
서울	1.92	0.77	17.3	1.89	0.84	17.0	1.90	0.83	12.4
경기	1.92	0.76	18.9	1.87	0.83	17.2	1.92	0.83	12.9
전남	1.81	0.78	27.7	1.86	0.83	21.6	1.94	0.86	17.4
충남	1.87	0.79	22.6	1.91	0.83	19.8	1.97	0.85	16.6
경남	1.91	0.79	24.5	1.86	0.85	20.5	1.94	0.86	17.5

(주) 경제유발계수 값은 각 유발계수 효과를 보증공급액으로 나눈 값으로 전산업유발계수 값임

2019년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생산유발계수는 1.87로서 다른 재단의 생산유발계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다른 재단과 비슷하고 취업유발계수는 21.2로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27.7에 비해서 작은 수치이다. 이는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공급 할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생산유발계수는 1.83으로서 충남신용보증재단 1.91에 비교해서 낮으며 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3으로 다른 재단과 비슷한 수치이다. 취업유발계수는 18.6이며 전남신용보증재단이 21.6으로 가장 높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7.0으로 가장 낮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신규 보증을 취급한 경우 다른 재단과 비교해서 평균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생산유발계수는 1.90이며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1.97로 가장 높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3으로 6개 재단이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17.5로 가장 높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2.4로 가장 낮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3.9로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왔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25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시에서 최근 3년간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의 경제유발효과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산업부문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 즉 후방 연쇄효과를 의미하는 영향력계수는 1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유발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2025년 인천의 유발계수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는 지역내에서는 1.2이고 지역외에서는 0.7 전국은 총 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역내에서는 0.5이고 지역외에서는 0.3 전국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는 인천시 내부의 유발효과이고 지역외는 인천수요로 인천 외의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다.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와 고용유발계수(명/10억 원)는 각각 13.9명과 7.4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23년도 약 2,317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4,4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는데 보증 금액 투입 금액이 많은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918억 원의 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였다.

취업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3,286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73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두 효과 모두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43.6%와 41.0%가 발생하여 40%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현황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업종 편중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

원도 소상공인의 도매·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어 타업종 대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4년도 약 2,644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5,0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32.1%가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19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3,675명과 1,963명이 발생하였다. 고용유발효과 발생과 관련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4.9.13일자 "희망인천 특례보증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따르면 '24년도에 희망특례 보증을 이용한 고객중에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응답 업체의 21%였으며, 응답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약 1,631명인 것으로 조사[1] 되었는데 이 수치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25년도는 약 2,888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업종별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5,49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했으며 '24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에서 32.5%가 발생하였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386억 원의 유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취업유발 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23년과 '24년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증가하면서 취업·고용유발효과 인원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위와 같았으며 이어서 '25년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군구별로 총 6,957억 원의 신규 보증액을 지원하였는데 서구에 1,469억 원을 공급하여 가장 많이 공급하였으며 남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공급하였다. 서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공급합계액이 전체 공급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가 〈표 2-22〉군구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현황에서 보듯이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의 50%[2]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 역시 타 군구에 비해 많은 점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를 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구가 2,786억 원, 남동구가 2,364억 원, 미추홀구가 1,752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3개구가 전체 생산유발 효과액 13,237억 원의 52.1%인 6,9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면 전체 5,759억 원의 효과가 발생했으며 서구가 1,215억 원, 남동구가 1,023억 원,

1) '24.8.13일부터 8.20일까지 카카오톡 설문조사로 실시 하였으며 '24년도 희망인천특례보증을 이용한 고객인 5,702명에게 배포하여 약 22%인 1,238명이 응답하였음

2) 통계청의 「23년도 군구별 기업규모별 사업체 현황」에 의하면 인천시 소상공인은 325,827개이며, 서구 66,006개, 남동구 57,738개, 미추홀구 41,752개임

연수구가 776억 원으로 3개구 합계가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유발 효과를 보면 9,66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했는데 서구가 2,005명, 남동구가 1,706명, 연수구가 1,305명으로 3개구 합계가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5,17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했고 서구, 남동구, 연수구 등 3개구의 합계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증 공급을 많이 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 효과가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군구에 따라서 업종별 경제유발효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강화군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3억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경우 취업유발 효과가 25명이 발생하였으나, 옹진군의 경우 같은 업종에 6억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경우 19명의 취업유발효과만 발생하여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군구의 지역내와 지역외에서 경제유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바, 이는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타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제유발효과 추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첫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증가율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3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도 각각 36%와 51%가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유발 효과가 21%만 증가하였다. 2022년 대비 2025년 보증공급량은 15%가 증가 하였는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20%, 15%씩 증가하였으나 취업유발 효과는 오히려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2년에 비슷한 36%의 보증 증가율을 보인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비교했을 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생산유발효과는 약간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는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 경제유발효과가 약간씩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2019년에 비해 2025년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총 보증공급은 72.3%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76.7%, 부가가치유발효과 88.1%, 취업유발효과는 25.7%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보증공급량을 달리하였을 때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비슷하게 증가하는데 취업유발 효과는 그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증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경제유발효과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각각의 유발효과가 보증공급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보증공급량 자체보다는 지역산업구조와 업종에 따라서 보증투입량을 다르게 하면 각각의 경제적파급효과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세종시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여 2025년 7월 공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인천지역 최초로 경제적 현황을 고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증공급액의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추정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유발효과는 보증공급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 업종과 산업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향후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경제유발효과와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보증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규 보증공급액의 투입이 가장 많았던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운수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모두가 크게 추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효과가 거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등의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이유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고용흡수율이 높아 고용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소매업은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및 다양한 유통 채널의 증가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음식 및 숙박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의 문턱이 낮고, 청년층이나 퇴직 및 실직 후 중장년층의 창업이 많아져 과다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폐업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금 지원 측면 이외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구별 경제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비교적 신용보증공급액이 많은 서구와 남동구 순으로 경제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구에서는 타 지역 대비 농림어업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 투입 대비 취업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중구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에 대한 신규 보증 공급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보증 정책 수립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특례 보증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경제유발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공급은 지역에 많은 경제적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안정된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경제유발효과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회사 출연요율 개선이다. 은행권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은 원래 0.04%였는데 2024년 제도 개편을 통해 기본요율을 0.05%로 높이고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한시 조치가 종료되어 기본 0.05%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회사 출연금의 분배 비율이 신보나 기술신보에 비해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 격차를 줄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을 0.07%로 상시화하거나 경기위험 연동 추가 출연요율을 적용하여 기본요율 0.05% + 경기·위험 연동 추가 요율을 0~0.03%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지역신보 전체 대위변제율, 소상공인 연체율, 폐업률 등이 일정 수준 이상시 0.01~0.03%의 추가 출연을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2026년 6월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서 현재 50% 이상인 일반 재보증비율을 8월부터 30%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중저신용자들은 50~60% 수준의 재보증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해야 보증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보증비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은행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은 증가하고 재원 증가 폭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 있는바, 금융회사와 정부의 출연 확대를 통해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도록 한 후에 재보증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증심사 방식의 변화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국세청 재무자료와 신용평점, 부채 등의 자료만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판단 하기 보다는 카드매출, 지역화폐 매출, 상권유동인구, 업종

별 매출추세, 임대료, 공실률, 배달 매출, 지역경기, 사업자의 생존기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실제 영업실적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증 심사기법을 개발하여 고도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2020년 이후에도 지역의 산업 및 기술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보다 최근 연도의 지역산업연관표가 공표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소상공인의 매출실적과 같은 직접적 효과인 재무적성과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경영컨설팅과 같은 비금융 지원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성격과 지원제도는 다르겠지만 보증 잔액과 보증 공급규모가 비슷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이나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른 경제적파급효과를 추정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증만 이용한 기업과 보증과 비금융지원을 동시에 이용한 기업의 매출·고용·생존율을 비교하면 정책적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좋은 연구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단행본·연구보고서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40년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5),「2025 보증이용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효과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5),「2025 연차보고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5),「2025년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보고서」

이춘근(2007), 지역산업연관분석론, 학문사

한국은행(2014),「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2025),「2020년 산업연관표 지역표」

연구 논문, 보도자료

강성호·이종욱·홍순영·오승현·문외솔·채창균(2014), “신용보증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 중소기업금융연구, 제34권 제1호

권성환(200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방향에 관한 연구 ”,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상봉·김정렬(2013),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 연구, 제26권 제3호

김성록(2013),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 간 산업의 연계성분석 및 지역산업연관표의 추계 기법”,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정렬·김상봉·남주하(2014), “신용보증 지원 성과 분석과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한국응용경제, 제16권 제2호

김찬수(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 및 성과”, 감사원 감사연구원

노용환(2009), “경기침체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성과 및 역할”, 중소기업금융연구, 가을호

박양호(2002), “지역 균형과 지방분권의 통합 패러다임과 전략”, 국토연구원, 247

박응삼(2016),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한 강원도 산림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갑모(2015), “소상공인 용어의 표기에 관한 연구”, 2015년 한국창업학추계학술 대회발표 논문집

우소동(2013), “한국의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연구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영중·황성수(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 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제23권 제1호

윤상용(2013),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4호

이용두(2010), “지역신용보증제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한국창업학회지, 제5권 제2호

이진욱(2013), “DEA를 이용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의 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충기(2009), “강원랜드 리조트카지노의 강원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영향력 분석”, 관광 연구, 제24권 제2호

조원희(200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정란(2020),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 분석”, 목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채희율(2013),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과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최창열(2008), “신용보증 지원의 경제적 성과와 발전 방안 최종보고서”, 한국생산성학회, 제22권 제3호

한봉희·노승종(200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30권 제3호

한성민(2021), “지역산업연관분석 기반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유발 효과 추정 ”,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Craig, B., et al(2005), “SBA-loan guarantees and local economic growth,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Fletcher, J. E.(1989), “Input-output analysis and tourism impact stud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6

Kang, J., and Heshmati, A.(2008), Effect of credit guarantee policy on survival and performance of SMEs in Republic of Korea, Small Business Economics, vol.31, no.4

기본연구보고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 행 인 이부현

발 행 일 2026년 10월

발 행 처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사연구실

인 쇄 처 032디자인㈜

연구책임 유길현

ⓒ 인천신용보증재단 2026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